

2023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 보고서

2023. 12.



Contents

Chapter 0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Chapter 02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06
2. 조사 도구	07
3. 조사 기간 및 절차	09
4. 자료 분석	10

Chapter 03 **조사 결과**

1. 심리적 외상 실태 결과	12
1) 심리적 외상 유무	12
2) 심리적 외상 유형 및 발생시기	16
3)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41
2. 심리적 외상 관련 요인 실태 결과	44
1)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44
2) 심리적 외상 관련 공존증상	60
3. 기관 인식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결과	79
1)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인식 실태	79
2) 심리적 외상 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85

Chapter 04 **제언**

97

Chapter 05 **참고문헌**

101

[부록] 설문지

105

표 목차

〈표 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07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09
〈표 3〉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유무	12
〈표 4〉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재학 중 청소년)	13
〈표 5〉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	14
〈표 6〉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재학 중 청소년)	15
〈표 7〉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16
〈표 8〉 성별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17
〈표 9〉 성별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18
〈표 10〉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18
〈표 11〉 성별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19
〈표 12〉 성별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19
〈표 13〉 성별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20
〈표 14〉 성별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20
〈표 15〉 성별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21
〈표 16〉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재학 중 청소년)	21
〈표 17〉 학교급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	22
〈표 18〉 학교급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	23
〈표 19〉 학교급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	24
〈표 20〉 학교급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	25
〈표 21〉 학교급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	26
〈표 22〉 학교급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	27
〈표 23〉 학교급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	28
〈표 24〉 학교급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	29
〈표 25〉 학교급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	30
〈표 26〉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	31
〈표 27〉 자치구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2

표 목차

〈표 28〉 자치구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3
〈표 29〉 자치구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4
〈표 30〉 자치구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5
〈표 31〉 자치구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6
〈표 32〉 자치구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7
〈표 33〉 자치구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8
〈표 34〉 자치구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39
〈표 35〉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재학 중 청소년)	40
〈표 36〉 재학 중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41
〈표 37〉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재학 중 청소년)	41
〈표 38〉 학교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	42
〈표 39〉 자치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차이	43
〈표 40〉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44
〈표 4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 (재학 중 청소년)	45
〈표 42〉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재학 중 청소년) ·	46
〈표 43〉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47
〈표 44〉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 (재학 중 청소년)	48
〈표 45〉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49
〈표 46〉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 ·	50
〈표 47〉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	51
〈표 48〉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	52
〈표 49〉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 ·	53

표 목차

〈표 50〉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	54
〈표 51〉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 (재학 중 청소년)	55
〈표 52〉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재학 중 청소년)	56
〈표 5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57
〈표 54〉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 (재학 중 청소년)	58
〈표 55〉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59
〈표 56〉 재학 중 청소년의 공존증상 수준	60
〈표 57〉 성별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1
〈표 58〉 성별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1
〈표 59〉 성별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2
〈표 60〉 성별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2
〈표 61〉 성별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3
〈표 62〉 성별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4
〈표 63〉 성별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64
〈표 64〉 학교급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	65
〈표 65〉 학교급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	66
〈표 66〉 학교급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	67
〈표 67〉 학교급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	68
〈표 68〉 학교급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	69
〈표 69〉 학교급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	70
〈표 70〉 학교급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	71
〈표 71〉 자치구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2

표 목차

〈표 72〉 자치구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3
〈표 73〉 자치구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4
〈표 74〉 자치구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5
〈표 75〉 자치구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6
〈표 76〉 자치구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7
〈표 77〉 자치구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78
〈표 78〉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인식 실태	79
〈표 79〉 성별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80
〈표 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80
〈표 81〉 학교급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81
〈표 82〉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82
〈표 83〉 자치구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83
〈표 84〉 자치구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84
〈표 85〉 심리적 외상관련 서비스 요구도	85
〈표 86〉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	86
〈표 87〉 성별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86
〈표 88〉 성별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87
〈표 89〉 성별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88
〈표 90〉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	89
〈표 91〉 학교급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90
〈표 92〉 학교급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91
〈표 93〉 학교급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92
〈표 94〉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	93
〈표 95〉 자치구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94
〈표 96〉 자치구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95
〈표 97〉 자치구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96

2023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 보고서

0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Chapter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 심리적 외상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경우,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를 말한다(APA, 2013). 이러한 심리적 외상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되고(Ozer et al., 2003; Frazier et al., 2009), 많은 경우 성인기에 도달하기 전에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안현의, 2005).
- 청소년기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발달단계에 있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이 때 경험한 외상은 성인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McCormick et al., 2010; 차지영 외, 2019), 심리적으로 불안, 우울, 공황장애, 정서조절곤란 및 자살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을 발생시켜(Barlow et al., 2004; Hawks et al., 2011; Stevens et al., 2003),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현미, 정민선, 2014; 주소희, 2016; Kilmer, 2006; Cogle et al., 2009).
- 심리적 외상 관련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외상을 경험한 성인들의 경우 스스로에 대해 부적절감을 느끼고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최은영, 안현의, 2011),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 신체화 증상, 우울, 충동성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귀여루, 2001).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외상경험은 해리, 자아해체감, 신체화 증상,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지각의 변화,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보이고 전반적인 자아 손상이나 성격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ole & Putnam, 1992; Herman, 1992; van der Kolk, 1987).

- 이렇듯 청소년기의 심리적 외상 경험은 성인들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아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까지 만성화되기 쉬워 더욱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서영석 외, 2012; 안현의, 2005). 특히, 청소년기 심리적 외상 경험은 모방 자살과 같은 2차 피해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유순덕, 2018), 심리적 개입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하며(이미원, 2018),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2022.12)」 제5조(실태조사)에 의거 하여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10~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현재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경험 특성을 이해하여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지원 방안 및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023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 보고서

02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2. 조사 도구
3. 조사 기간 및 절차
4. 자료 분석

“

Chapter 2

조사 개요

”

1 | 조사 대상

- 본 실태조사는 인구비례층화할당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자치구별, 성별, 연령대별(만10세 ~ 24세) 표본수 할당을 실시한 후 2023년 9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세 달 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면조사는 대전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소 및 쉼터 소속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온라인 조사는 전문 온라인 조사업체의 대전지역 후기청소년 패널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한 1,25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별 분포는 남자 569명(45.2%), 여자 690명(54.8%)이었으며, 소속 기관은 초등학교 335명(26.6%), 중학교 341명(27.0%), 고등학교 371명(29.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기타 기관은 40명(3.2%), 후기 청소년은 172명(13.7%)으로 나타났다. 구별 분포는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을 제외하고 동구 125명(11.9%), 중구 178명(17.0%), 서구 289명(27.6%), 대덕구 164명(15.7%), 유성구 291명(27.8%)으로 나타났다.

표 1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합계(%)
성별	남자	569(45.2)	1,259(100)
	여자	690(54.8)	
학교급	초등학생	335(26.6)	1,259(100)
	중학생	341(27.0)	
	고등학생	371(29.5)	
	학교밖 청소년	40(3.2)	
	후기 청소년	172(13.7)	
자치구	동구	125(11.9)	1,047(83.2)
	중구	178(17.0)	
	서구	289(27.6)	
	대덕구	164(15.7)	
	유성구	291(27.8)	

2 | 조사 도구

- 본 실태조사는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심리적 외상 실태와 관련하여 외상 유형, 외상 시기, 외상 증상을 측정하고,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공존 증상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요구도를 측정하였다.

-
- 외상 유형의 경우,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에서 사용한 외상 유형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송승훈 등(2009)이 개발한 외상 경험 목록 질문지를 참고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심리적 외상을 정하고 심리적 외상 시기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심리적 외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Prins 등(2016)이 개발하고, Jung 등(2018)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DSM-5기준 PTSD진단 스크리닝 도구 K-PC-PTSD-5를 사용하였다.
 - 심리적 외상과 관련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각각의 일상생활영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경험 이후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해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등의 5개 문항으로 외상 피해를 측정하였고,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공존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 검사2(KSCL95)의 불안조절문제와 관련된 범불안, 공황발작, 우울조절문제와 관련된 주요우울장애, 분노조절문제와 관련된 간헐적폭발성장애, 피해사고와 관련된 망상장애, 신체화문제 및 중독문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 기관의 인식 실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전화1388 각각에 대해 물었고, 서비스 요구도는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4가지 심리적 외상 관련 사업 영역에 대해 각각 한 문항씩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새롭게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한 문항은 심리학 교수 1인, 박사급 전문가 1인 및 청소년 상담분야 현장전문가 4인의 안면타당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 α)	
심리적 외상 요인	심리적 외상 유형 및 시기	3	1, 2, 3	-	
	심리적 외상 증상	5	4, 5, 6, 7, 8	.843	
심리적 외상 관련 요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5	9, 10, 11, 12, 13	.920	
	공존 증상	불안	6	14, 15, 16, 17, 18, 19	.881
		공황	3	20, 21, 22	.874
		우울	9	23, 24, 25, 26, 27, 28, 29, 30, 31	.931
		분노	7	32, 33, 34, 35, 36, 37, 38	.896
		피해 사고	7	39, 40, 41, 42, 43, 44, 45	.908
		신체화	7	46, 47, 48, 49, 50, 51, 52	.914
		중독	3	53, 54, 55	.898
기관 인식 관련	기관인식실태	2	56, 57	.710	
	서비스요구도	4	58, 59, 60, 61	.942	

3 조사 기간 및 절차

- 2023년 9월 대전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유관기관의 참여 협조 요청을 위해 협조공문 및 설문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별 기관에 연락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후기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추가 설문이 필요한 경우 설문링크를 배포하여 수집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9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초 최종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용으로 코딩하고 데이터 클리닝 실시 후 본 분석을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 데이터를 제외한 최종 1,259명의 자료를 SPS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심리적 외상 유형이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등은 총점으로 수렴되어 추상화된 수치보다 개별 측정 문항의 수치가 반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태가 의미 있기때문에 개별 문항 단위의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했으며, 심리적 외상 증상이나 공존증상의 경우 총점이 갖는 의미가 명확하고 총점에 대한 절단점수 해석이 가능하여 총점과 점수에 따른 유형별 빈도를 살펴보고 집단에 따른 차이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카이제곱 값(X^2)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03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조사 도구
3. 조사 기간 및 절차
4. 자료 분석

“

Chapter 3

조사 결과

”

1 심리적 외상 실태 결과¹⁾

1) 심리적 외상 유무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 1,047명 중 39.1%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이상의 심리적 외상 경험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유무

재학 중 청소년	구분		합계
	심리적 외상 없음	심리적 외상 있음	
Count	638	409	1,047
% within 심리적 외상유무	60.9%	39.1%	100%

1) 학교 밖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재학 중 청소년 표본만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의 조사 결과는 아래 '(2) 학교급에 따른 분석'에 따로 제시함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있다’ 39.6%, ‘없다’ 60.4%, 여성의 경우 ‘있다’ 38.6%, ‘없다’ 61.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09$, $p>.05$).

표 4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 유무			$X^2(p)$
		심리적 외상 있음	심리적 외상 없음	전체	
남성	Count	203	310	513	.109 (.742)
	% within 성별	39.6%	60.4%	100%	
여성	Count	206	328	534	
	% within 성별	38.6%	61.4%	100%	
전체	Count	409	638	1,047	
	% within 성별	39.1%	60.9%	100%	

(2)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36.1%, ‘심리적 외상 없음’ 63.9%, 중학생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40.8%, ‘심리적 외상 없음’ 59.2%, 고등학생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40.2%, ‘심리적 외상 없음’ 59.8%, 후기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59.9%, ‘심리적 외상 없음’ 40.1%,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70.0%, ‘심리적 외상 없음’ 3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40.307$, $p<.001$).

표 5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

		심리적 외상 유무			$\chi^2(p)$
		심리적 외상 있음	심리적 외상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121	214	335	40.307 (.000)
	% within 학교급	36.1%	63.9%	100%	
중학생	Count	139	202	341	
	% within 학교급	40.8%	59.2%	100%	
고등학생	Count	149	222	371	
	% within 학교급	40.2%	59.8%	100%	
후기 청소년	Count	103	69	172	
	% within 학교급	59.9%	40.1%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8	12	40	
	% within 학교급	70.0%	30.0%	100%	
전체	Count	540	719	1,259	
	% within 학교급	42.9%	57.1%	100%	

(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38.4%, ‘심리적 외상 없음’ 61.6%, 중구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41.0%, ‘심리적 외상 없음’ 59.0%, 서구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40.5%, ‘심리적 외상 없음’ 59.5%, 대덕구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47.0%, ‘심리적 외상 없음’ 53.0%, 유성구의 경우 ‘심리적 외상 있음’ 32.3%, ‘심리적 외상 없음’ 67.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0.427$, $p<.05$).

표 6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무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 유무			$X^2(p)$
		심리적 외상 있음	심리적 외상 없음	전체	
동구	Count	48	77	125	10.427 (.034)
	% within 자치구	38.4%	61.6%	100%	
중구	Count	73	105	178	
	% within 자치구	41.0%	59.0%	100%	
서구	Count	117	172	289	
	% within 자치구	40.5%	59.5%	100%	
대덕구	Count	77	87	164	
	% within 자치구	47.0%	53.0%	100%	
유성구	Count	94	197	291	
	% within 자치구	32.3%	67.7%	100%	
전체	Count	409	638	1,047	
	% within 자치구	39.1%	60.9%	100%	

2) 심리적 외상 유형 및 발생시기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 1,047명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의 유형은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13.3%),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11.1%),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사고나 자연재해(5.8%),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5.4%), 심각한 신체질병(4.4%), 범죄피해(2.7%), 성추행이나 성폭행(1.7%) 순으로 나타났다.



주. 1=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사고나 자연재해, 2=심각한 신체질병, 3=범죄피해, 4=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5=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6=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7=성추행이나 성폭행, 8=기타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이 경험한 심리적 외상이 발생한 시기는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0.2%,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람이 12.0%로 나타났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합계
	현재~3개월 전	3개월 ~ 6개월 전	6개월 ~ 1년 전	1년 이상	
Count	126	81	105	735	1,047
% within 발생시기	12.0%	7.8%	10.0%	70.2%	100%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형 및 발생시기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나 자연 재해’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8.2%, ‘없다’ 91.8%, 여성의 경우 ‘있다’ 3.6%, ‘없다’ 96.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0.219$, $p<.05$).

표 8 성별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사고나 자연재해			$X^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42	471	513	10.219 (.001)
	% within 성별	8.2%	91.8%	100%	
여성	Count	19	515	534	
	% within 성별	3.6%	96.4%	100%	
전체	Count	61	986	1,047	
	% within 성별	5.8%	94.2%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신체 질병’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6.0%, ‘없다’ 94.0%, 여성의 경우 ‘있다’ 2.8%, ‘없다’ 97.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6.514$, $p<.05$).

표 9 성별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각한 신체질병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31	482	513	6.514 (.015)
	% within 성별	6.0%	94.0%	100%	
여성	Count	15	519	534	
	% within 성별	2.8%	97.2%	100%	
전체	Count	46	1,001	1,047	
	% within 성별	4.4%	95.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3.9%, ‘없다’ 96.1%, 여성의 경우 ‘있다’ 1.5%, ‘없다’ 98.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793$, $p<.05$).

표 10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범죄피해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20	493	513	5.793 (.016)
	% within 성별	3.9%	96.1%	100%	
여성	Count	8	526	534	
	% within 성별	1.5%	98.5%	100%	
전체	Count	28	1,019	1,047	
	% within 성별	2.7%	97.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11.7%, ‘없다’ 88.3%, 여성의 경우 ‘있다’ 14.8%, ‘없다’ 85.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2.181$, $p>.05$).

표 11 성별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60	453	513	2.181 (.140)
	% within 성별	11.7%	88.3%	100%	
여성	Count	79	455	534	
	% within 성별	14.8%	85.2%	100%	
전체	Count	139	908	1,047	
	% within 성별	13.3%	86.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9.6%, ‘없다’ 90.4%, 여성의 경우 ‘있다’ 12.5%, ‘없다’ 87.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2.383$, $p>.05$).

표 12 성별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49	464	513	2.383 (.123)
	% within 성별	9.6%	90.4%	100%	
여성	Count	67	467	534	
	% within 성별	12.5%	87.5%	100%	
전체	Count	116	931	1,047	
	% within 성별	11.1%	88.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4.7%, ‘없다’ 95.3%, 여성의 경우 ‘있다’ 6.2%, ‘없다’ 93.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146$, $p>.05$).

표 13 성별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24	489	513	1.146 (.284)
	% within 성별	4.7%	95.3%	100%	
여성	Count	33	501	534	
	% within 성별	6.2%	93.8%	100%	
전체	Count	57	990	1,047	
	% within 성별	5.4%	94.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이나 성폭행’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0.8%, ‘없다’ 99.2%, 여성의 경우 ‘있다’ 2.6%, ‘없다’ 97.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254$, $p<.05$).

표 14 성별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성추행이나 성폭행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4	509	513	5.254 (.030)
	% within 성별	0.8%	99.2%	100%	
여성	Count	14	520	534	
	% within 성별	2.6%	97.4%	100%	
전체	Count	18	1,029	1,047	
	% within 성별	1.7%	98.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에서 남성의 경우 ‘있다’ 8.8%, ‘없다’ 91.2%, 여성의 경우 ‘있다’ 6.9%, ‘없다’ 93.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231$, $p>.05$).

표 15 성별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chi^2(p)$
		있음	없음	전체	
남성	Count	45	468	513	1.231 (.267)
	% within 성별	8.8%	91.2%	100%	
여성	Count	37	497	534	
	% within 성별	6.9%	93.1%	100%	
전체	Count	82	965	1,047	
	% within 성별	7.8%	92.2%	100%	

-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0.1%,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람이 11.7%로 나타났고, 6개월~1년 전,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3%, 3개월 전, 6개월~1년 사이가 11.0%,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102, p>.05$).

표 16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전체	$\chi^2(p)$
		현재~ 3개월 전	3개월 ~ 6개월 전	6개월 ~ 1년 전	1년 이상		
남성	Count	27	16	26	162	231	.102 (.992)
	% within 성별	11.7%	6.9%	11.3%	70.1%	100%	
여성	Count	33	20	33	214	300	
	% within 성별	11.0%	6.7%	11.0%	71.3%	100%	
전체	Count	60	36	59	376	531	
	% within 성별	11.3%	6.8%	11.1%	70.8%	100%	

(2)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형 및 발생시기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나 자연 재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5.1%, ‘없음’ 94.9%, 중학생의 경우 ‘있음’ 6.5%, ‘없음’ 93.5%,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5.9%, ‘없음’ 94.1%,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11.0%, ‘없음’ 94.1%,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10.0%, ‘없음’ 9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7.725$, $p>.05$).

표 17 학교급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

		사고나 자연재해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17	318	335	7.725 (.102)
	% within 학교급	5.1%	94.9%	100%	
중학생	Count	22	319	341	
	% within 학교급	6.5%	93.5%	100%	
고등학생	Count	22	349	371	
	% within 학교급	5.9%	94.1%	100%	
후기 청소년	Count	19	153	172	
	% within 학교급	11.0%	89.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4	36	40	
	% within 학교급	10.0%	90.0%	100%	
전체	Count	84	1,175	1,259	
	% within 학교급	6.7%	93.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2.7%, ‘없음’ 97.3%, 중학생의 경우 ‘있음’ 2.9%, ‘없음’ 97.1%,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2.4%, ‘없음’ 97.6%,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7.6%, ‘없음’ 92.4%,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5.0%, ‘없음’ 9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135$, $p<.05$).

표 18 학교급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

		범죄피해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9	326	335	11.135 (.025)
	% within 학교급	2.7%	97.3%	100%	
중학생	Count	10	331	341	
	% within 학교급	2.9%	97.1%	100%	
고등학생	Count	9	362	371	
	% within 학교급	2.4%	97.6%	100%	
후기 청소년	Count	13	159	172	
	% within 학교급	7.6%	92.4%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	38	40	
	% within 학교급	5.0%	95.0%	100%	
전체	Count	43	1,216	1,259	
	% within 학교급	3.4%	96.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신체질병’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4.2%, ‘없음’ 95.8%, 중학생의 경우 ‘있음’ 3.2%, ‘없음’ 96.8%,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5.7%, ‘없음’ 94.3%,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4.7%, ‘없음’ 95.3%,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7.5%, ‘없음’ 9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3.356, p>.05$).

표 19 학교급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

		심각한 신체질병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14	321	335	3.356 (.500)
	% within 학교급	4.2%	95.8%	100%	
중학생	Count	11	330	341	
	% within 학교급	3.2%	96.8%	100%	
고등학생	Count	21	350	371	
	% within 학교급	5.7%	94.3%	100%	
후기 청소년	Count	8	164	172	
	% within 학교급	4.7%	95.3%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3	37	40	
	% within 학교급	7.5%	92.5%	100%	
전체	Count	57	1,202	1,259	
	% within 학교급	4.5%	95.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2.7%, ‘없음’ 97.3%, 중학생의 경우 ‘있음’ 2.9%, ‘없음’ 97.1%,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2.4%, ‘없음’ 97.6%,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7.6%, ‘없음’ 92.4%,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5.0%, ‘없음’ 9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135$, $p<.05$).

표 20 학교급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

		범죄피해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9	326	335	11.135 (.025)
	% within 학교급	2.7%	97.3%	100%	
중학생	Count	10	331	341	
	% within 학교급	2.9%	97.1%	100%	
고등학생	Count	9	362	371	
	% within 학교급	2.4%	97.6%	100%	
후기 청소년	Count	13	159	172	
	% within 학교급	7.6%	92.4%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	38	40	
	% within 학교급	5.0%	95.0%	100%	
전체	Count	43	1,216	1,259	
	% within 학교급	3.4%	96.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12.2%, ‘없음’ 87.8%, 중학생의 경우 ‘있음’ 13.8%, ‘없음’ 86.2%,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13.7%, ‘없음’ 86.3%,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22.1%, ‘없음’ 77.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10.0%, ‘없음’ 9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0.403$, $p<.05$).

표 21 학교급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41	294	335	10.403 (.034)
	% within 학교급	12.2%	87.8%	100%	
중학생	Count	47	294	341	
	% within 학교급	13.8%	86.2%	100%	
고등학생	Count	51	320	371	
	% within 학교급	13.7%	86.3%	100%	
후기 청소년	Count	38	134	172	
	% within 학교급	22.1%	77.9%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4	36	40	
	% within 학교급	10.0%	90.0%	100%	
전체	Count	181	1,078	1,259	
	% within 학교급	14.4%	85.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9.9%, ‘없음’ 90.1%, 중학생의 경우 ‘있음’ 12.0%, ‘없음’ 88.0%,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11.3%, ‘없음’ 88.7%,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15.1%, ‘없음’ 84.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30.0%, ‘없음’ 7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5.166$, $p<.05$).

표 22 학교급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33	302	335	15.166 (.004)
	% within 학교급	9.9%	90.1%	100%	
중학생	Count	41	300	341	
	% within 학교급	12.0%	88.0%	100%	
고등학생	Count	42	329	371	
	% within 학교급	11.3%	88.7%	100%	
후기 청소년	Count	26	146	172	
	% within 학교급	15.1%	84.9%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12	28	40	
	% within 학교급	30.0%	70.0%	100%	
전체	Count	154	1,105	1,259	
	% within 학교급	12.2%	87.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6.0%, ‘없음’ 94.0%, 중학생의 경우 ‘있음’ 4.4%, ‘없음’ 95.6%,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5.9%, ‘없음’ 94.1%,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22.1%, ‘없음’ 77.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20.0%, ‘없음’ 8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62.931$, $p<.001$).

표 23 학교급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20	315	335	62.931 (.000)
	% within 학교급	6.0%	94.0%	100%	
중학생	Count	15	326	341	
	% within 학교급	4.4%	95.6%	100%	
고등학생	Count	22	349	371	
	% within 학교급	5.9%	94.1%	100%	
후기 청소년	Count	38	134	172	
	% within 학교급	22.1%	77.9%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8	32	40	
	% within 학교급	20.0%	80.0%	100%	
전체	Count	103	1,156	1,259	
	% within 학교급	8.2%	91.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이나 성폭행’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0.6%, ‘없음’ 99.4%, 중학생의 경우 ‘있음’ 2.1%, ‘없음’ 97.9%,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2.4%, ‘없음’ 97.6%,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11.6%, ‘없음’ 88.4%,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10.0%, ‘없음’ 9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2.670$, $p<.001$).

표 24 학교급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chi^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2	333	335	52.670 (.000)
	% within 학교급	0.6%	99.4%	100%	
중학생	Count	7	334	341	
	% within 학교급	2.1%	97.9%	100%	
고등학생	Count	9	362	371	
	% within 학교급	2.4%	97.6%	100%	
후기 청소년	Count	20	152	172	
	% within 학교급	11.6%	88.4%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4	36	40	
	% within 학교급	10.0%	90.0%	100%	
전체	Count	42	1,217	1,259	
	% within 학교급	3.3%	96.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있음’ 7.5%, ‘없음’ 92.5%, 중학생의 경우 ‘있음’ 8.8%, ‘없음’ 91.2%, 고등학생의 경우 ‘있음’ 7.3%, ‘없음’ 92.7%,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있음’ 7.0%, ‘없음’ 93.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있음’ 20.0%, ‘없음’ 8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8.642$, $p>.05$).

표 25 학교급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X^2(p)$
		있음	없음	전체	
초등학생	Count	25	310	335	8.642 (.071)
	% within 학교급	7.5%	92.5%	100%	
중학생	Count	30	311	341	
	% within 학교급	8.8%	91.2%	100%	
고등학생	Count	27	344	371	
	% within 학교급	7.3%	92.7%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	160	172	
	% within 학교급	7.0%	93.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8	32	40	
	% within 학교급	20.0%	80.0%	100%	
전체	Count	102	1,157	1,259	
	% within 학교급	8.1%	91.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초등 학생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3.3%,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람이 16.7%로 나타났고, 6개월~1년 전,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6%, 3개월 전에 발생한 사람이 15.0%, 3개월~6개월 사이, 6개월~1년 사이 순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4.7%, 6개월~1년 사이가 11.6%, 3개월~6개월 사이, 3개월 전 순으로 나타났고, 후기 청소년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7.7%, 6개월~1년 사이에 발생한 사람이 11.7%, 3개월 전,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3.5%, 6개월~1년 사이로 응답한 사람이 25%, 3개월 전, 3개월~6개월 사이로 응답한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7.225$, $p<.05$).

표 26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전체	$X^2(p)$
		현재~ 3개월 전	3개월 ~ 6개월 전	6개월 ~ 1년 전	1년 이상			
초등 학생	Count	20	8	16	76	120	27.225 (.007)	
	% within 학교급	16.7%	6.7%	13.3%	63.3%	100%		
중학생	Count	20	11	7	96	134		
	% within 학교급	15.0%	8.2%	5.2%	71.6%	100%		
고등 학생	Count	8	12	17	109	146		
	% within 학교급	5.5%	8.2%	11.6%	74.7%	100%		
후기 청소년	Count	7	4	12	80	103		
	% within 학교급	6.7%	3.9%	11.7%	77.7%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5	1	7	15	28		
	% within 학교급	17.9%	3.6%	25.0%	53.5%	100%		
전체	Count	60	36	59	376	531		
	% within 학교급	11.3%	6.8%	11.1%	70.8%	100%		

(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유형 및 발생시기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고나 자연 재해’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3.2%, ‘없음’ 96.8%, 중구의 경우 ‘있음’ 7.9%, ‘없음’ 92.1%, 서구의 경우 ‘있음’ 4.8%, ‘없음’ 95.2%, 대덕구의 경우 ‘있음’ 9.1%, ‘없음’ 90.9%, 유성구의 경우 ‘있음’ 4.8%, ‘없음’ 95.2%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7.269$, $p>.05$).

표 27 자치구에 따른 사고나 자연재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사고나 자연재해			$X^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4	121	125	7.269 (.122)
	% within 자치구	3.2%	96.8%	100%	
중구	Count	14	164	178	
	% within 자치구	7.9%	92.1%	100%	
서구	Count	14	275	289	
	% within 자치구	4.8%	95.2%	100%	
대덕구	Count	15	149	164	
	% within 자치구	9.1%	90.9%	100%	
유성구	Count	14	277	291	
	% within 자치구	4.8%	95.2%	100%	
전체	Count	61	986	1,047	
	% within 자치구	5.8%	94.2%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신체 질병’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4.8%, ‘없음’ 95.2%, 중구의 경우 ‘있음’ 3.4%, ‘없음’ 96.6%, 서구의 경우 ‘있음’ 4.5%, ‘없음’ 95.5%, 대덕구의 경우 ‘있음’ 4.9%, ‘없음’ 95.1%, 유성구의 경우 ‘있음’ 4.5%, ‘없음’ 95.5%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0.595$, $p>.05$).

표 28 자치구에 따른 심각한 신체질병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각한 신체질병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6	119	125	0.595 (.964)
	% within 자치구	4.8%	95.2%	100%	
중구	Count	6	172	178	
	% within 자치구	3.4%	96.6%	100%	
서구	Count	13	276	289	
	% within 자치구	4.5%	95.5%	100%	
대덕구	Count	8	156	164	
	% within 자치구	4.9%	95.1%	100%	
유성구	Count	13	278	291	
	% within 자치구	4.5%	95.5%	100%	
전체	Count	46	1,001	1,047	
	% within 자치구	4.4%	95.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2.4%, ‘없음’ 97.6%, 중구의 경우 ‘있음’ 3.4%, ‘없음’ 96.6%, 서구의 경우 ‘있음’ 2.8%, ‘없음’ 97.2%, 대덕구의 경우 ‘있음’ 3.0%, ‘없음’ 97.0%, 유성구의 경우 ‘있음’ 2.1%, ‘없음’ 97.9%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0.885$, $p>.05$).

표 29 자치구에 따른 범죄피해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범죄피해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3	122	125	0.885 (.927)
	% within 자치구	2.4%	97.6%	100%	
중구	Count	6	172	178	
	% within 자치구	3.4%	96.6%	100%	
서구	Count	8	281	289	
	% within 자치구	2.8%	97.2%	100%	
대덕구	Count	5	159	164	
	% within 자치구	3.0%	97.0%	100%	
유성구	Count	6	285	291	
	% within 자치구	2.1%	97.9%	100%	
전체	Count	28	1,019	1,047	
	% within 자치구	2.7%	97.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12.8%, ‘없음’ 87.2%, 중구의 경우 ‘있음’ 14.0%, ‘없음’ 86.0%, 서구의 경우 ‘있음’ 12.8%, ‘없음’ 87.2%, 대덕구의 경우 ‘있음’ 17.7%, ‘없음’ 82.3%, 유성구의 경우 ‘있음’ 11.0%, ‘없음’ 89.0%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4.252$, $p>.05$).

표 30 자치구에 따른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16	109	125	4.252 (.373)
	% within 자치구	12.8%	87.2%	100%	
중구	Count	25	153	178	
	% within 자치구	14.0%	86.0%	100%	
서구	Count	37	252	289	
	% within 자치구	12.8%	87.2%	100%	
대덕구	Count	29	135	164	
	% within 자치구	17.7%	82.3%	100%	
유성구	Count	32	259	291	
	% within 자치구	11.0%	89.0%	100%	
전체	Count	139	908	1,047	
	% within 자치구	13.3%	86.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15.2%, ‘없음’ 84.8%, 중구의 경우 ‘있음’ 11.2%, ‘없음’ 88.8%, 서구의 경우 ‘있음’ 11.8%, ‘없음’ 88.2%, 대덕구의 경우 ‘있음’ 11.0%, ‘없음’ 89.0%, 유성구의 경우 ‘있음’ 8.6%, ‘없음’ 91.4%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4.127$, $p>.05$).

표 31 자치구에 따른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			$X^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19	106	125	4.127 (.389)
	% within 자치구	15.2%	84.8%	100%	
중구	Count	20	158	178	
	% within 자치구	11.2%	88.8%	100%	
서구	Count	34	255	289	
	% within 자치구	11.8%	88.2%	100%	
대덕구	Count	18	146	164	
	% within 자치구	11.0%	89.0%	100%	
유성구	Count	25	266	291	
	% within 자치구	8.6%	91.4%	100%	
전체	Count	116	931	1,047	
	% within 자치구	11.1%	88.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5.6%, ‘없음’ 94.4%, 중구의 경우 ‘있음’ 4.5%, ‘없음’ 95.5%, 서구의 경우 ‘있음’ 5.2%, ‘없음’ 94.8%, 대덕구의 경우 ‘있음’ 4.3%, ‘없음’ 95.7%, 유성구의 경우 ‘있음’ 6.9%, ‘없음’ 93.1%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1.948$, $p>.05$).

표 32 자치구에 따른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7	118	125	1.948 (.745)
	% within 자치구	5.6%	94.4%	100%	
중구	Count	8	170	178	
	% within 자치구	4.5%	95.5%	100%	
서구	Count	15	274	289	
	% within 자치구	5.2%	94.8%	100%	
대덕구	Count	7	157	164	
	% within 자치구	4.3%	95.7%	100%	
유성구	Count	20	271	291	
	% within 자치구	6.9%	93.1%	100%	
전체	Count	57	990	1,047	
	% within 자치구	5.4%	94.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추행이나 성폭행’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1.6%, ‘없음’ 98.4%, 중구의 경우 ‘있음’ 2.2%, ‘없음’ 97.8%, 서구의 경우 ‘있음’ 1.0%, ‘없음’ 99.0%, 대덕구의 경우 ‘있음’ 3.0%, ‘없음’ 97.0%, 유성구의 경우 ‘있음’ 1.4%, ‘없음’ 98.6%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3.018$, $p>.05$).

표 33 자치구에 따른 성추행이나 성폭행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성추행이나 성폭행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2	123	125	3.018 (.555)
	% within 자치구	1.6%	98.4%	100%	
중구	Count	4	174	178	
	% within 자치구	2.2%	97.8%	100%	
서구	Count	3	286	289	
	% within 자치구	1.0%	99.0%	100%	
대덕구	Count	5	159	164	
	% within 자치구	3.0%	97.0%	100%	
유성구	Count	4	287	291	
	% within 자치구	1.4%	98.6%	100%	
전체	Count	18	1,029	1,047	
	% within 자치구	1.7%	98.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에서 동구의 경우 ‘있음’ 7.2%, ‘없음’ 92.8%, 중구의 경우 ‘있음’ 9.0%, ‘없음’ 91.0%, 서구의 경우 ‘있음’ 7.3%, ‘없음’ 92.7%, 대덕구의 경우 ‘있음’ 11.0%, ‘없음’ 89.0%, 유성구의 경우 ‘있음’ 6.2%, ‘없음’ 93.8%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2=3.865$, $p>.05$).

표 34 자치구에 따른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외상 차이(재학 중 청소년)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chi^2(p)$
		있음	없음	전체	
동구	Count	9	116	125	3.865 (.425)
	% within 자치구	7.2%	92.8%	100%	
중구	Count	16	162	178	
	% within 자치구	9.0%	91.0%	100%	
서구	Count	21	268	289	
	% within 자치구	7.3%	92.7%	100%	
대덕구	Count	18	146	164	
	% within 자치구	11.0%	89.0%	100%	
유성구	Count	18	273	291	
	% within 자치구	6.2%	93.8%	100%	
전체	Count	82	965	1,047	
	% within 자치구	7.8%	92.2%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55.1%, 6개월~1년 사이에 발생한 사람이 24.5%로 나타났고, 3개월 전,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고, 중구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0.4%, 3개월 전과 6개월~1년 사이에 발생한 사람이 11.3%,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고, 서구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7.1%, 3개월 전에 발생한 사람이 9.2%, 6개월~1년 사이,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고, 대덕구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9.6%, 3개월~6개월 사이에 발생한 사람이 12.7%, 3개월 전, 6개월~1년 사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성구의 경우 1년 이상 과거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0.7%, 3개월 전에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17.4%, 6개월~1년 사이, 3개월~6개월 사이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1.687$, $p<.05$).

표 35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 발생 시기					전체	$X^2(p)$
		현재~ 3개월 전	3개월 ~ 6개월 전	6개월 ~ 1년 전	1년 이상			
동구	Count	6	4	12	27	49	21.687 (.041)	
	% within 자치구	12.2%	8.2%	24.5%	55.1%	100%		
중구	Count	8	5	8	50	71		
	% within 자치구	11.3%	7.0%	11.3%	70.4%	100%		
서구	Count	10	7	8	84	109		
	% within 자치구	9.2%	6.4%	7.3%	77.1%	100%		
대덕구	Count	8	10	6	55	79		
	% within 자치구	10.1%	12.7%	7.6%	69.6%	100%		
유성구	Count	16	5	6	65	92		
	% within 자치구	17.4%	5.4%	6.5%	70.7%	100%		
전체	Count	60	36	59	376	531		
	% within 자치구	11.3%	6.8%	11.1%	70.8%	100%		

3)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은 3점 이상을 나타낸 위험군이 11.1%로 나타났다.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국립정신건강센터, 2021)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생 유병률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에 비해 약 7배가 넘는 수치로 대전지역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수준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6 재학 중 청소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재학 중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합계
	정상 (0~1점)	주의 (2점)	위험 (3점 이상)	
Count	868	63	116	1,047
% within 외상증상	82.9%	6.0%	11.1%	

(1)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위험' 8.2%, '주의' 6.6%, '정상' 85.2%, 여성의 경우 '위험' 13.9%, '주의' 5.4%, '정상' 80.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8.848$, $p<.05$).

표 37 성별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재학 중 청소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X^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남성	Count	437	34	42	513	8.848 (.012)
	% within 성별	85.2%	6.6%	8.2%	100%	
여성	Count	431	29	74	534	
	% within 성별	80.7%	5.4%	13.9%	100%	
전체	Count	868	63	116	1,047	
	% within 성별	82.9%	6.0%	11.1%	100%	

(2) 학교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 학생의 경우 ‘위험’ 12.2%, ‘주의’ 9.9%, ‘정상’ 77.9%, 중학생의 경우 ‘위험’ 11.4%, ‘주의’ 4.1%, ‘정상’ 84.5%,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9.7%, ‘주의’ 4.3%, ‘정상’ 86.0%,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26.0%, ‘주의’ 11.8%, ‘정상’ 62.2%,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27.5%, ‘주의’ 10.0%, ‘정상’ 6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9.768$, $p<.001$).

표 38 학교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 학생	Count	261	33	41	335	59.768 (.000)
	% within 학교급	77.9%	9.9%	12.2%	100%	
중학생	Count	288	14	39	341	
	% within 학교급	84.5%	4.1%	11.4%	100%	
고등 학생	Count	319	16	36	371	
	% within 학교급	86.0%	4.3%	9.7%	100%	
후기 청소년	Count	105	20	44	169	
	% within 학교급	62.2%	11.8%	26.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5	4	11	40	
	% within 학교급	62.5%	10.0%	27.5%	100%	
전체	Count	998	87	171	1,256	
	% within 학교급	79.5%	6.9%	13.6%	100%	

(3) 자치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7.2%, '주의' 4.8%, '정상' 88.0%, 중구의 경우 '위험' 11.2%, '주의' 4.5%, '정상' 84.3%, 서구의 경우 '위험' 11.8%, '주의' 6.5%, '정상' 81.7%, 대덕구의 경우 '위험' 12.8%, '주의' 7.9%, '정상' 79.3%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5.168$, $p>.05$).

표 39 자치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10	6	9	125	5.168 (.739)
	% within 자치구	88.0%	4.8%	7.2%	100%	
중구	Count	150	8	20	178	
	% within 자치구	84.3%	4.5%	11.2%	100%	
서구	Count	236	19	34	289	
	% within 자치구	81.7%	6.5%	11.8%	100%	
대덕구	Count	130	13	21	164	
	% within 자치구	79.3%	7.9%	12.8%	100%	
유성구	Count	242	17	32	291	
	% within 자치구	83.2%	5.8%	11.0%	100%	
전체	Count	868	63	116	1,047	
	% within 자치구	82.9%	6.0%	11.1%	100%	

2 심리적 외상관련 요인 실태 결과2)

1)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대인관계 문제(조금 심각함 이상 5.8%)’, ‘심각한 감정적 고통 문제(5.3%)’,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4.6%)’, ‘학교 성적 등 학교생활 문제(3.7%)’, ‘사회적 관계 단절 문제(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재학 중 청소년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합계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문제	Count	903	96	40	8	1,047
	% within 피해	86.2%	9.2%	3.8%	0.8%	100%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	Count	901	90	39	17	1,047
	% within 피해	86.1%	8.6%	3.7%	1.6%	100%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	Count	913	73	46	15	1,047
	% within 피해	87.2%	7.0%	4.4%	1.4%	100%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	Count	949	63	28	7	1,047
	% within 피해	90.6%	6.0%	2.7%	0.7%	100%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문제	Count	945	63	31	8	1,047
	% within 피해	90.3%	6.0%	3.0%	0.7%	100%

2) 학교 밖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재학 중 청소년 표본만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의 조사 결과는 아래 '(2) 학교급에 따른 분석'에 따로 제시함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1.2%, ‘조금 심각함’ 3.1%, ‘심각하지 않음’ 8.4%, ‘경험없음’ 87.3%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0.4%, ‘조금 심각함’ 4.5%, ‘심각하지 않음’ 9.9%, ‘경험없음’ 85.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4.276$, $p>.05$).

표 4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 (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해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적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남성	Count	448	43	16	6	513	4.276 (.233)
	% within 성별	87.3%	8.4%	3.1%	1.2%	100%	
여성	Count	455	53	24	2	534	
	% within 성별	85.2%	9.9%	4.5%	0.4%	100%	
전체	Count	903	96	40	8	1,047	
	% within 성별	86.2%	9.2%	3.8%	0.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1.6%, ‘조금 심각함’ 2.5%, ‘심각하지 않음’ 8.0%, ‘경험없음’ 87.9%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1.7%, ‘조금 심각함’ 4.9%, ‘심각하지 않음’ 9.1%, ‘경험없음’ 84.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4.685$, $p>.05$).

표 42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 (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남성	Count	451	41	13	8	513	4.685 (.196)
	% within 성별	87.9%	8.0%	2.5%	1.6%	100%	
여성	Count	450	49	26	9	534	
	% within 성별	84.3%	9.1%	4.9%	1.7%	100%	
전체	Count	901	90	39	17	1,047	
	% within 성별	86.1%	8.6%	3.7%	1.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3.3%, ‘심각하지 않음’ 5.8%, ‘경험없음’ 90.1%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2.0%, ‘조금 심각함’ 5.4%, ‘심각하지 않음’ 8.1%, ‘경험없음’ 84.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8.427$, $p<.05$).

표 43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남성	Count	462	30	17	4	513	8.427 (.038)
	% within 성별	90.1%	5.8%	3.3%	0.8%	100%	
여성	Count	451	43	29	11	534	
	% within 성별	84.5%	8.1%	5.4%	2.0%	100%	
전체	Count	913	73	46	15	1,047	
	% within 성별	87.2%	7.0%	4.4%	1.4%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2.1%, ‘심각하지 않음’ 5.5%, ‘경험없음’ 91.8%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0.7%, ‘조금 심각함’ 3.2%, ‘심각하지 않음’ 6.6%, ‘경험없음’ 89.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838, p>.05$).

표 44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 (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남성	Count	471	28	11	3	513	1.838 (.607)
	% within 성별	91.8%	5.5%	2.1%	0.6%	100%	
여성	Count	478	35	17	4	534	
	% within 성별	89.5%	6.6%	3.2%	0.7%	100%	
전체	Count	949	63	28	7	1,047	
	% within 성별	90.6%	6.0%	2.7%	0.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2.1%, ‘심각하지 않음’ 5.7%, ‘경험없음’ 91.2%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3.7%, ‘심각하지 않음’ 6.4%, ‘경험없음’ 89.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3.176$, $p>.05$).

표 45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남성	Count	468	29	11	5	513	3.176 (.365)
	% within 성별	91.2%	5.7%	2.1%	1.0%	100%	
여성	Count	477	34	20	3	534	
	% within 성별	89.3%	6.4%	3.7%	0.6%	100%	
전체	Count	945	63	31	8	1,047	
	% within 성별	90.3%	6.0%	3.0%	0.7%	100%	

(2)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3.6%, ‘심각하지 않음’ 9.0%, ‘경험없음’ 86.6%, 중학교의 경우 ‘많이 심각함’ 0.9%, ‘조금 심각함’ 4.1%, ‘심각하지 않음’ 9.7%, ‘경험없음’ 85.3%, 고등학교의 경우 ‘많이 심각함’ 0.5%, ‘조금 심각함’ 3.8%, ‘심각하지 않음’ 8.9%, ‘경험없음’ 86.8%,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4.1%, ‘조금 심각함’ 10.7%, ‘심각하지 않음’ 17.9%, ‘경험없음’ 67.3%,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0%, ‘조금 심각함’ 17.5%, ‘심각하지 않음’ 15.0%, ‘경험없음’ 57.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77.251$, $p<.001$).

표 46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 건강 문제

		그 경험 이후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해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X^2(\rho)$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290	30	12	3	335	77.251 (.000)
	% within 학교급	86.6%	9.0%	3.6%	0.8%	100%	
중학생	Count	291	33	14	3	341	
	% within 학교급	85.3%	9.7%	4.1%	0.9%	100%	
고등학생	Count	322	33	14	2	371	
	% within 학교급	86.8%	8.9%	3.8%	0.5%	100%	
후기 청소년	Count	113	30	18	7	168	
	% within 학교급	67.3%	17.9%	10.7%	4.1%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3	6	7	4	40	
	% within 학교급	57.5%	15.0%	17.5%	10.0%	100%	
전체	Count	1,039	132	65	19	1,255	
	% within 학교급	82.8%	10.5%	5.2%	1.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1.5%, ‘조금 심각함’ 3.3%, ‘심각하지 않음’ 8.7%, ‘경험없음’ 86.5%, 중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2.6%, ‘조금 심각함’ 3.8%, ‘심각하지 않음’ 9.7%, ‘경험없음’ 83.9%, 고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4.0%, ‘심각하지 않음’ 7.5%, ‘경험없음’ 87.7%,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5.4%, ‘조금 심각함’ 10.7%, ‘심각하지 않음’ 13.7%, ‘경험없음’ 70.2%,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7.5%, ‘조금 심각함’ 12.5%, ‘심각하지 않음’ 17.5%, ‘경험없음’ 6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49.760$, $p<.001$).

표 47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

		그 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chi^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290	29	11	5	335	49.760 (.000)
	% within 학교급	86.5%	8.7%	3.3%	1.5%	100%	
중학생	Count	286	33	13	9	341	
	% within 학교급	83.9%	9.7%	3.8%	2.6%	100%	
고등학생	Count	325	28	15	3	371	
	% within 학교급	87.7%	7.5%	4.0%	0.8%	100%	
후기 청소년	Count	118	23	18	9	168	
	% within 학교급	70.2%	13.7%	10.7%	5.4%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5	7	5	3	40	
	% within 학교급	62.5%	17.5%	12.5%	7.5%	100%	
전체	Count	1,044	120	62	29	1,255	
	% within 학교급	83.2%	9.6%	4.9%	2.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4.2%, ‘심각하지 않음’ 7.5%, ‘경험없음’ 87.5%, 중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2.1%, ‘조금 심각함’ 3.2%, ‘심각하지 않음’ 8.2%, ‘경험없음’ 86.5%, 고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1.3%, ‘조금 심각함’ 5.7%, ‘심각하지 않음’ 5.4%, ‘경험없음’ 87.6%,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6.0%, ‘조금 심각함’ 7.1%, ‘심각하지 않음’ 22.0%, ‘경험없음’ 64.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15.0%, ‘조금 심각함’ 10.0%, ‘심각하지 않음’ 12.5%, ‘경험없음’ 6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94.509$, $p<.001$).

표 48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

		그 경험 이후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초등학생	Count	293	25	14	3	335	94.509 (.000)	
	% within 학교급	87.5%	7.5%	4.2%	0.8%	100%		
중학생	Count	295	28	11	7	341		
	% within 학교급	86.5%	8.2%	3.2%	2.1%	100%		
고등학생	Count	325	20	21	5	371		
	% within 학교급	87.6%	5.4%	5.7%	1.3%	100%		
후기 청소년	Count	109	37	12	10	168		
	% within 학교급	64.9%	22.0%	7.1%	6.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5	5	4	6	40		
	% within 학교급	62.5%	12.5%	10.0%	15.0%	100%		
전체	Count	1,047	115	62	31	1,255		
	% within 학교급	83.4%	9.2%	4.9%	2.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1.8%, '심각하지 않음' 6.3%, '경험없음' 91.3%, 중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2.1%, '심각하지 않음' 5.9%, '경험없음' 91.2%, 고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5%, '조금 심각함' 4.0%, '심각하지 않음' 6.0%, '경험없음' 89.5%,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6.0%, '조금 심각함' 7.1%, '심각하지 않음' 15.5%, '경험없음' 71.4%,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0%, '조금 심각함' 10.0%, '심각하지 않음' 20.0%, '경험없음' 6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92.286$, $p<.001$).

표 49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

		그 경험 이후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306	21	6	2	335	92.286 (.000)
	% within 학교급	91.3%	6.3%	1.8%	0.6%	100%	
중학생	Count	311	20	7	3	341	
	% within 학교급	91.2%	5.9%	2.1%	0.8%	100%	
고등학생	Count	332	22	15	2	371	
	% within 학교급	89.5%	6.0%	4.0%	0.5%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0	26	12	10	168	
	% within 학교급	71.4%	15.5%	7.1%	6.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4	8	4	4	40	
	% within 학교급	60.0%	20.0%	10.0%	10.0%	100%	
전체	Count	1,093	97	44	21	1,255	
	% within 학교급	87.1%	7.7%	3.5%	1.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9%, ‘조금 심각함’ 2.4%, ‘심각하지 않음’ 5.4%, ‘경험없음’ 91.3%, 중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3.0%, ‘심각하지 않음’ 7.0%, ‘경험없음’ 89.4%, 고등학생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3.5%, ‘심각하지 않음’ 5.7%, ‘경험없음’ 90.0%,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4.8%, ‘조금 심각함’ 8.9%, ‘심각하지 않음’ 14.3%, ‘경험없음’ 72.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많이 심각함’ 12.5%, ‘조금 심각함’ 15.0%, ‘심각하지 않음’ 15.0%, ‘경험없음’ 57.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94.601$, $p<.001$).

표 50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

		그 경험 이후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초등 학생	Count	306	18	8	3	335	94.601 (.000)
	% within 학교급	91.3%	5.4%	2.4%	0.9%	100%	
중학생	Count	305	24	10	2	341	
	% within 학교급	89.4%	7.0%	3.0%	0.6%	100%	
고등 학생	Count	334	21	13	3	371	
	% within 학교급	90.0%	5.7%	3.5%	0.8%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1	24	15	8	168	
	% within 학교급	72.0%	14.3%	8.9%	4.8%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3	6	6	5	40	
	% within 학교급	57.5%	15.0%	15.0%	12.5%	100%	
전체	Count	1,089	93	52	21	1,255	
	% within 학교급	86.8%	7.4%	4.1%	1.7%	100%	

(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5.6%, '심각하지 않음' 8.8%, '경험없음' 84.8%, 중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5%, '조금 심각함' 6.2%, '심각하지 않음' 9.0%, '경험없음' 84.3%, 서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3.5%, '심각하지 않음' 9.7%, '경험없음' 85.8%, 대덕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2%, '조금 심각함' 2.4%, '심각하지 않음' 11.6%, '경험없음' 84.8%, 유성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4%, '조금 심각함' 2.7%, '심각하지 않음' 7.6%, '경험없음' 89.3%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9.381, p>.05$).

표 51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한 신체건강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해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chi^2(p)$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동구	Count	106	11	7	1	125	9.381 (.670)
	% within 자치구	84.8%	8.8%	5.6%	0.8%	100%	
중구	Count	150	16	11	1	178	
	% within 자치구	84.3%	9.0%	6.2%	0.5%	100%	
서구	Count	248	28	10	3	289	
	% within 자치구	85.8%	9.7%	3.5%	1.0%	100%	
대덕구	Count	139	19	4	2	164	
	% within 자치구	84.8%	11.6%	2.4%	1.2%	100%	
유성구	Count	260	22	8	1	291	
	% within 자치구	89.3%	7.6%	2.7%	0.4%	100%	
전체	Count	903	96	40	8	1,047	
	% within 자치구	86.2%	9.2%	3.8%	0.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6.4%, ‘심각하지 않음’ 8.8%, ‘경험없음’ 84.0%, 중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7%, ‘조금 심각함’ 3.9%, ‘심각하지 않음’ 12.9%, ‘경험없음’ 81.5%, 서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4%, ‘조금 심각함’ 2.8%, ‘심각하지 않음’ 9.3%, ‘경험없음’ 86.5%, 대덕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2.5%, ‘조금 심각함’ 1.8%, ‘심각하지 않음’ 7.3%, ‘경험없음’ 88.4%, 유성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7%, ‘조금 심각함’ 4.5%, ‘심각하지 않음’ 5.8%, ‘경험없음’ 88.0%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4.144$, $p>.05$).

표 52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X^2(\rho)$
		경험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동구	Count	105	11	8	1	125	14.144 (.292)
	% within 자치구	84.0%	8.8%	6.4%	0.8%	100%	
중구	Count	145	23	7	3	178	
	% within 자치구	81.5%	12.9%	3.9%	1.7%	100%	
서구	Count	250	27	8	4	289	
	% within 자치구	86.5%	9.3%	2.8%	1.4%	100%	
대덕구	Count	145	12	3	4	164	
	% within 자치구	88.4%	7.3%	1.8%	2.5%	100%	
유성구	Count	256	17	13	5	291	
	% within 자치구	88.0%	5.8%	4.5%	1.7%	100%	
전체	Count	901	90	39	17	1,047	
	% within 자치구	86.1%	8.6%	3.7%	1.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4.8%, ‘심각하지 않음’ 10.4%, ‘경험없음’ 84.0%, 중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2.2%, ‘조금 심각함’ 3.4%, ‘심각하지 않음’ 7.9%, ‘경험없음’ 86.5%, 서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4.5%, ‘심각하지 않음’ 6.6%, ‘경험없음’ 87.9%, 대덕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2%, ‘조금 심각함’ 1.8%, ‘심각하지 않음’ 10.4%, ‘경험없음’ 86.6%, 유성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7%, ‘조금 심각함’ 6.2%, ‘심각하지 않음’ 3.4%, ‘경험없음’ 88.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7.317$, $p>.05$).

표 5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chi^2(p)$
		경험 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동구	Count	105	13	6	1	125	17.317 (.138)
	% within 자치구	84.0%	10.4%	4.8%	0.8%	100%	
중구	Count	154	14	6	4	178	
	% within 자치구	86.5%	7.9%	3.4%	2.2%	100%	
서구	Count	254	19	13	3	289	
	% within 자치구	87.9%	6.6%	4.5%	1.0%	100%	
대덕구	Count	142	17	3	2	164	
	% within 자치구	86.6%	10.4%	1.8%	1.2%	100%	
유성구	Count	258	10	18	5	291	
	% within 자치구	88.7%	3.4%	6.2%	1.7%	100%	
전체	Count	913	73	46	15	1,047	
	% within 자치구	87.2%	7.0%	4.4%	1.4%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0%, ‘조금 심각함’ 0.8%, ‘심각하지 않음’ 10.4%, ‘경험없음’ 88.8%, 중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0%, ‘조금 심각함’ 4.5%, ‘심각하지 않음’ 6.2%, ‘경험없음’ 89.3%, 서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2.8%, ‘심각하지 않음’ 5.5%, ‘경험없음’ 90.7%, 대덕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0.0%, ‘심각하지 않음’ 6.7%, ‘경험없음’ 92.7%, 유성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3.8%, ‘심각하지 않음’ 4.1%, ‘경험없음’ 91.1%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8.904$, $p>.05$).

표 54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 (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까?					$\chi^2(p)$
		경험 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동구	Count	111	13	1	0	125	18.904 (.091)
	% within 자치구	88.8%	10.4%	0.8%	0.0%	100%	
중구	Count	159	11	8	0	178	
	% within 자치구	89.3%	6.2%	4.5%	0.0%	100%	
서구	Count	262	16	8	3	289	
	% within 자치구	90.7%	5.5%	2.8%	1.0%	100%	
대덕구	Count	152	11	0	1	164	
	% within 자치구	92.7%	6.7%	0.0%	0.6%	100%	
유성구	Count	265	12	11	3	291	
	% within 자치구	91.1%	4.1%	3.8%	1.0%	100%	
전체	Count	949	63	28	7	1,047	
	% within 자치구	90.6%	6.0%	2.7%	0.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8%, ‘조금 심각함’ 4.0%, ‘심각하지 않음’ 5.6%, ‘경험없음’ 89.6%, 중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6%, ‘조금 심각함’ 4.5%, ‘심각하지 않음’ 7.9%, ‘경험없음’ 87.0%, 서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0%, ‘조금 심각함’ 2.5%, ‘심각하지 않음’ 4.5%, ‘경험없음’ 92.0%, 대덕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1.3%, ‘조금 심각함’ 1.8%, ‘심각하지 않음’ 6.7%, ‘경험없음’ 90.2%, 유성구의 경우 ‘많이 심각함’ 0.3%, ‘조금 심각함’ 2.7%, ‘심각하지 않음’ 6.3%, ‘경험없음’ 90.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7.018$, $p>.05$).

표 55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재학 중 청소년)

		그 경험 이후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X^2(p)$
		경험 없음	심각하지 않음	조금 심각함	많이 심각함	전체	
동구	Count	112	7	5	1	125	7.018 (.856)
	% within 자치구	89.6%	5.6%	4.0%	0.8%	100%	
중구	Count	155	14	8	1	178	
	% within 자치구	87.0%	7.9%	4.5%	0.6%	100%	
서구	Count	266	13	7	3	289	
	% within 자치구	92.0%	4.5%	2.5%	1.0%	100%	
대덕구	Count	148	11	3	2	164	
	% within 자치구	90.2%	6.7%	1.8%	1.3%	100%	
유성구	Count	264	18	8	1	291	
	% within 자치구	90.7%	6.3%	2.7%	0.3%	100%	
전체	Count	945	63	31	8	1,047	
	% within 자치구	90.2%	6.0%	3.0%	0.8%	100%	

2)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 대전광역시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실태조사 결과, 불안문제에서 T70점 이상을 나타내는 위험군은 5.5%, 공황발작 위험군은 5.0%, 우울문제 위험군은 5.9%, 분노문제 위험군은 5.0%, 피해사고 위험군은 5.3%, 신체화 문제 위험군은 5.8%, 중독문제 위험군은 4.8%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T70점 이상인 경우 전국기준 2.5%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로, 대전지역 청소년의 공존증상 위험군은 평균 5.3%로 전국기준 두 배 가량 높아 대전지역의 공존증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냈다.

표 56 재학 중 청소년의 공존증상 수준

재학 중 청소년		공존증상(T점수)			합계
		정상 (T0~T59)	주의 (T60~T69)	위험 (T70 이상)	
불안	Count	803	123	54	980
	% within 공존증상	81.9%	12.6%	5.5%	100%
공황 발작	Count	851	80	49	980
	% within 공존증상	86.8%	8.2%	5.0%	100%
우울	Count	854	68	58	980
	% within 공존증상	87.2%	6.9%	5.9%	100%
분노	Count	875	56	49	980
	% within 공존증상	89.3%	5.7%	5.0%	100%
피해 사고	Count	868	60	52	980
	% within 공존증상	88.6%	6.1%	5.3%	100%
신체화	Count	854	69	57	980
	% within 공존증상	87.1%	7.1%	5.8%	100%
중독	Count	871	62	47	980
	% within 공존증상	88.9%	6.3%	4.8%	100%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범불안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6.3%, ‘위험’ 11.0%, ‘정상’ 82.7%, 여성의 경우 ‘문제’ 4.7%, ‘위험’ 14.1%, ‘정상’ 81.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3.046$, $p>.05$).

표 57 성별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범불안 문제 (T점수)				$X^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393	52	30	475	3.046 (.218)
	% within 성별	82.7%	11.0%	6.3%	100%	
여성	Count	410	71	24	505	
	% within 성별	81.2%	14.1%	4.7%	100%	
전체	Count	803	123	54	980	
	% within 성별	81.9%	12.6%	5.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공황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5.1%, ‘위험’ 6.3%, ‘정상’ 88.6%, 여성의 경우 ‘문제’ 5.0%, ‘위험’ 9.9%, ‘정상’ 85.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4.201$, $p>.05$).

표 58 성별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공황문제 (T점수)				$X^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21	30	24	475	4.201 (.122)
	% within 성별	88.6%	6.3%	5.1%	100%	
여성	Count	430	50	25	505	
	% within 성별	85.1%	9.9%	5.0%	100%	
전체	Count	851	80	49	980	
	% within 성별	86.8%	8.2%	5.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우울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5.9%, ‘위험’ 6.1%, ‘정상’ 88.0%, 여성의 경우 ‘문제’ 6.0%, ‘위험’ 7.7%, ‘정상’ 86.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002$, $p>.05$).

표 59 성별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우울문제 (T점수)				$\chi^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18	29	28	475	1.002 (.606)
	% within 성별	88.0%	6.1%	5.9%	100%	
여성	Count	436	39	30	505	
	% within 성별	86.3%	7.7%	6.0%	100%	
전체	Count	854	68	58	980	
	% within 성별	87.2%	6.9%	5.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분노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5.5%, ‘위험’ 6.5%, ‘정상’ 88.0%, 여성의 경우 ‘문제’ 4.5%, ‘위험’ 5.0%, ‘정상’ 90.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648$, $p>.05$).

표 60 성별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분노문제 (T점수)				$\chi^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18	31	26	475	1.648 (.439)
	% within 성별	88.0%	6.5%	5.5%	100%	
여성	Count	457	25	23	505	
	% within 성별	90.5%	5.0%	4.5%	100%	
전체	Count	875	56	49	980	
	% within 성별	89.3%	5.7%	5.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사고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5.7%, ‘위험’ 5.0%, ‘정상’ 89.3%, 여성의 경우 ‘문제’ 5.0%, ‘위험’ 7.1%, ‘정상’ 87.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2.021$, $p>.05$).

표 61 성별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피해사고 문제 (T점수)				$X^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24	24	27	475	2.021 (.364)
	% within 성별	89.3%	5.0%	5.7%	100%	
여성	Count	444	36	25	505	
	% within 성별	87.9%	7.1%	5.0%	100%	
전체	Count	868	60	52	980	
	% within 성별	88.6%	6.1%	5.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신체화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5.3%, ‘위험’ 6.1%, ‘정상’ 88.6%, 여성의 경우 ‘문제’ 6.3%, ‘위험’ 8.0%, ‘정상’ 85.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865$, $p>.05$).

표 62 성별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신체화 문제 (T점수)				$\chi^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21	29	25	475	1.865 (.394)
	% within 성별	88.6%	6.1%	5.3%	100%	
여성	Count	433	40	32	505	
	% within 성별	85.7%	8.0%	6.3%	100%	
전체	Count	854	69	57	980	
	% within 성별	87.1%	7.1%	5.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문제’ 6.3%, ‘위험’ 4.2%, ‘정상’ 89.5%, 여성의 경우 ‘문제’ 3.4%, ‘위험’ 8.3%, ‘정상’ 88.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11.000$, $p<.05$).

표 63 성별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중독문제 (T점수)				$\chi^2(p)$
		정상 (59점 이하)	위험 (60~69점)	문제 (70점 이상)	전체	
남성	Count	425	20	30	475	11.000 (.004)
	% within 성별	89.5%	4.2%	6.3%	100%	
여성	Count	446	42	17	505	
	% within 성별	88.3%	8.3%	3.4%	100%	
전체	Count	871	62	47	980	
	% within 성별	88.9%	6.3%	4.8%	100%	

(2)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범불안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5.2%, ‘주의’ 13.0%, ‘정상’ 81.8%, 중학생의 경우 ‘위험’ 5.6%, ‘주의’ 13.5%, ‘정상’ 80.9%,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5.6%, ‘주의’ 11.4%, ‘정상’ 83.0%,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10.5%, ‘주의’ 21.6%, ‘정상’ 67.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17.5%, ‘주의’ 15.0%, ‘정상’ 67.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5.927$, $p<.05$).

표 64 학교급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

		범불안 문제 (T점수)				$X^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20	35	14	269	25.927 (.001)
	% within 학교급	81.8%	13.0%	5.2%	100%	
중학생	Count	276	46	19	341	
	% within 학교급	80.9%	13.5%	5.6%	100%	
고등학생	Count	307	42	21	370	
	% within 학교급	83.0%	11.4%	5.6%	100%	
후기 청소년	Count	110	35	17	162	
	% within 학교급	67.9%	21.6%	10.5%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7	6	7	40	
	% within 학교급	67.5%	15.0%	17.5%	100%	
전체	Count	940	164	78	1,182	
	% within 학교급	79.5%	13.9%	6.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공황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4.8%, ‘주의’ 10.8%, ‘정상’ 84.4%, 중학생의 경우 ‘위험’ 3.8%, ‘주의’ 6.7%, ‘정상’ 89.5%,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6.2%, ‘주의’ 7.6%, ‘정상’ 86.2%,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16.0%, ‘주의’ 16.0%, ‘정상’ 68.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7.5%, ‘주의’ 27.5%, ‘정상’ 6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6.875$, $p<.001$).

표 65 학교급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

		공황문제 (T점수)				$X^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27	29	13	269	56.875 (.000)
	% within 학교급	84.4%	10.8%	4.8%	100%	
중학생	Count	305	23	13	341	
	% within 학교급	89.5%	6.7%	3.8%	100%	
고등학생	Count	319	28	23	370	
	% within 학교급	86.2%	7.6%	6.2%	100%	
후기 청소년	Count	110	26	26	162	
	% within 학교급	68.0%	16.0%	16.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6	11	3	40	
	% within 학교급	65.0%	27.5%	7.5%	100%	
전체	Count	987	117	78	1,182	
	% within 학교급	83.5%	9.9%	6.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우울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6.0%, ‘주의’ 6.3%, ‘정상’ 87.7%, 중학생의 경우 ‘위험’ 5.3%, ‘주의’ 7.0%, ‘정상’ 87.7%,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6.5%, ‘주의’ 7.3%, ‘정상’ 86.2%,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17.9%, ‘주의’ 14.2%, ‘정상’ 67.9%,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25.0%, ‘주의’ 5.0%, ‘정상’ 7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55.957$, $p<.001$).

표 66 학교급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

		우울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36	17	16	269	55.957 (.000)
	% within 학교급	87.7%	6.3%	6.0%	100%	
중학생	Count	299	24	18	341	
	% within 학교급	87.7%	7.0%	5.3%	100%	
고등학생	Count	319	27	24	370	
	% within 학교급	86.2%	7.3%	6.5%	100%	
후기 청소년	Count	110	23	29	162	
	% within 학교급	67.9%	14.2%	17.9%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8	2	10	40	
	% within 학교급	70.0%	5.0%	25.0%	100%	
전체	Count	992	93	97	1,182	
	% within 학교급	83.9%	7.9%	8.2%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분노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6.3%, '주의' 6.3%, '정상' 87.4%, 중학생의 경우 '위험' 5.9%, '주의' 4.4%, '정상' 89.7%,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3.2%, '주의' 6.5%, '정상' 90.3%,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9.3%, '주의' 3.7%, '정상' 87.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7.5%, '주의' 7.5%, '정상' 8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1.270$, $p>.05$).

표 67 학교급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

		분노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35	17	17	269	11.270 (.187)
	% within 학교급	87.4%	6.3%	6.3%	100%	
중학생	Count	306	15	20	341	
	% within 학교급	89.7%	4.4%	5.9%	100%	
고등학생	Count	334	24	12	370	
	% within 학교급	90.3%	6.5%	3.2%	100%	
후기 청소년	Count	141	6	15	162	
	% within 학교급	87.0%	3.7%	9.3%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34	3	3	40	
	% within 학교급	85.0%	7.5%	7.5%	100%	
전체	Count	1,050	65	67	1,182	
	% within 학교급	88.8%	5.5%	5.7%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사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4.1%, ‘주의’ 5.9%, ‘정상’ 90.0%, 중학생의 경우 ‘위험’ 6.2%, ‘주의’ 8.2%, ‘정상’ 85.6%,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5.4%, ‘주의’ 4.3%, ‘정상’ 90.3%,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8.6%, ‘주의’ 9.9%, ‘정상’ 81.5%,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15.0%, ‘주의’ 10.0%, ‘정상’ 7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8.535$, $p<.05$).

표 68 학교급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

		피해사고 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42	16	11	269	18.535 (.018)
	% within 학교급	90.0%	5.9%	4.1%	100%	
중학생	Count	292	28	21	341	
	% within 학교급	85.6%	8.2%	6.2%	100%	
고등학생	Count	334	16	20	370	
	% within 학교급	90.3%	4.3%	5.4%	100%	
후기 청소년	Count	132	16	14	162	
	% within 학교급	81.5%	9.9%	8.6%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30	4	6	40	
	% within 학교급	75.0%	10.0%	15.0%	100%	
전체	Count	1,030	80	72	1,182	
	% within 학교급	87.1%	6.8%	6.1%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신체화 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6.3%, '주의' 8.6%, '정상' 85.1%, 중학생의 경우 '위험' 5.6%, '주의' 5.0%, '정상' 89.4%,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5.7%, '주의' 7.8%, '정상' 86.5%,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13.0%, '주의' 9.8%, '정상' 77.2%,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7.5%, '주의' 15.0%, '정상' 77.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0.102$, $p<.05$).

표 69 학교급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

		신체화 문제 (T점수)				$X^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29	23	17	269	20.102 (.010)
	% within 학교급	85.1%	8.6%	6.3%	100%	
중학생	Count	305	17	19	341	
	% within 학교급	89.4%	5.0%	5.6%	100%	
고등학생	Count	320	29	21	370	
	% within 학교급	86.5%	7.8%	5.7%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5	16	21	162	
	% within 학교급	77.2%	9.8%	13.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31	6	3	40	
	% within 학교급	77.5%	15.0%	7.5%	100%	
전체	Count	1,010	91	81	1,182	
	% within 학교급	85.4%	7.7%	6.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위험’ 4.5%, ‘주의’ 7.4%, ‘정상’ 88.1%, 중학생의 경우 ‘위험’ 5.3%, ‘주의’ 5.0%, ‘정상’ 89.7%,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4.6%, ‘주의’ 6.8%, ‘정상’ 88.6%, 후기 청소년의 경우 ‘위험’ 11.7%, ‘주의’ 13.6%, ‘정상’ 74.7%,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위험’ 12.5%, ‘주의’ 7.5%, ‘정상’ 8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9.040$, $p<.001$).

표 70 학교급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

		중독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초등학생	Count	237	20	12	269	29.040 (.000)
	% within 학교급	88.1%	7.4%	4.5%	100%	
중학생	Count	306	17	18	341	
	% within 학교급	89.7%	5.0%	5.3%	100%	
고등학생	Count	328	25	17	370	
	% within 학교급	88.6%	6.8%	4.6%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1	22	19	162	
	% within 학교급	74.7%	13.6%	11.7%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32	3	5	40	
	% within 학교급	80.0%	7.5%	12.5%	100%	
전체	Count	1,024	87	71	1,182	
	% within 학교급	86.6%	7.4%	6.0%	100%	

(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범불안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3.4%, ‘주의’ 15.7%, ‘정상’ 80.9%, 중구의 경우 ‘위험’ 6.7%, ‘주의’ 10.7%, ‘정상’ 82.6%, 서구의 경우 ‘위험’ 6.7%, ‘주의’ 14.1%, ‘정상’ 79.3%, 대덕구의 경우 ‘위험’ 2.6%, ‘주의’ 11.5%, ‘정상’ 85.9%, 유성구의 경우 ‘위험’ 6.2%, ‘주의’ 11.7%, ‘정상’ 82.1%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7.289$, $p>.05$).

표 71 자치구에 따른 범불안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범불안 문제 (T점수)				$X^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93	18	4	115	7.289 (.506)
	% within 자치구	80.9%	15.7%	3.4%	100%	
중구	Count	147	19	12	178	
	% within 자치구	82.6%	10.7%	6.7%	100%	
서구	Count	191	34	16	241	
	% within 자치구	79.3%	14.1%	6.7%	100%	
대덕구	Count	134	18	4	156	
	% within 자치구	85.9%	11.5%	2.6%	100%	
유성구	Count	238	34	18	290	
	% within 자치구	82.1%	11.7%	6.2%	100%	
전체	Count	803	123	54	980	
	% within 자치구	81.9%	12.6%	5.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공황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5.2%, ‘주의’ 8.7%, ‘정상’ 86.1%, 중구의 경우 ‘위험’ 4.5%, ‘주의’ 9.0%, ‘정상’ 86.5%, 서구의 경우 ‘위험’ 7.5%, ‘주의’ 8.7%, ‘정상’ 83.8%, 대덕구의 경우 ‘위험’ 3.2%, ‘주의’ 5.8%, ‘정상’ 91.0%, 유성구의 경우 ‘위험’ 4.1%, ‘주의’ 8.3%, ‘정상’ 87.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6.450$, $p>.05$).

표 72 자치구에 따른 공황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공황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99	10	6	115	6.450 (.597)
	% within 자치구	86.1%	8.7%	5.2%	100%	
중구	Count	154	16	8	178	
	% within 자치구	86.5%	9.0%	4.5%	100%	
서구	Count	202	21	18	241	
	% within 자치구	83.8%	8.7%	7.5%	100%	
대덕구	Count	142	9	5	156	
	% within 자치구	91.0%	5.8%	3.2%	100%	
유성구	Count	254	24	12	290	
	% within 자치구	87.6%	8.3%	4.1%	100%	
전체	Count	851	80	49	980	
	% within 자치구	86.8%	8.2%	5.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우울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3.5%, ‘주의’ 8.7%, ‘정상’ 87.8%, 중구의 경우 ‘위험’ 5.1%, ‘주의’ 4.5%, ‘정상’ 90.4%, 서구의 경우 ‘위험’ 6.6%, ‘주의’ 7.1%, ‘정상’ 86.3%, 대덕구의 경우 ‘위험’ 2.6%, ‘주의’ 6.4%, ‘정상’ 91.0%, 유성구의 경우 ‘위험’ 8.6%, ‘주의’ 8.0%, ‘정상’ 83.4%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11.632$, $p>.05$).

표 73 자치구에 따른 우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우울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01	10	4	115	11.632 (.168)
	% within 자치구	87.8%	8.7%	3.5%	100%	
중구	Count	161	8	9	178	
	% within 자치구	90.4%	4.5%	5.1%	100%	
서구	Count	208	17	16	241	
	% within 자치구	86.3%	7.1%	6.6%	100%	
대덕구	Count	142	10	4	156	
	% within 자치구	91.0%	6.4%	2.6%	100%	
유성구	Count	242	23	25	290	
	% within 자치구	83.4%	8.0%	8.6%	100%	
전체	Count	854	68	58	980	
	% within 자치구	87.1%	6.9%	6.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분노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1.7%, ‘주의’ 4.3%, ‘정상’ 94.0%, 중구의 경우 ‘위험’ 6.2%, ‘주의’ 6.7%, ‘정상’ 87.1%, 서구의 경우 ‘위험’ 5.4%, ‘주의’ 6.2%, ‘정상’ 88.4%, 대덕구의 경우 ‘위험’ 2.6%, ‘주의’ 3.8%, ‘정상’ 93.6%, 유성구의 경우 ‘위험’ 6.6%, ‘주의’ 6.2%, ‘정상’ 87.2%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9.008$, $p>.05$).

표 74 자치구에 따른 분노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분노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08	5	2	115	9.008 (.342)
	% within 자치구	94.0%	4.3%	1.7%	100%	
중구	Count	155	12	11	178	
	% within 자치구	87.1%	6.7%	6.2%	100%	
서구	Count	213	15	13	241	
	% within 자치구	88.4%	6.2%	5.4%	100%	
대덕구	Count	146	6	4	156	
	% within 자치구	93.6%	3.8%	2.6%	100%	
유성구	Count	253	18	19	290	
	% within 자치구	87.2%	6.2%	6.6%	100%	
전체	Count	875	56	49	980	
	% within 자치구	89.3%	5.7%	5.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피해사고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2.6%, ‘주의’ 5.2%, ‘정상’ 92.2%, 중구의 경우 ‘위험’ 5.6%, ‘주의’ 4.5%, ‘정상’ 89.9%, 서구의 경우 ‘위험’ 5.0%, ‘주의’ 6.6%, ‘정상’ 88.4%, 대덕구의 경우 ‘위험’ 5.8%, ‘주의’ 5.8%, ‘정상’ 88.4%, 유성구의 경우 ‘위험’ 6.2%, ‘주의’ 7.2%, ‘정상’ 86.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4.157$, $p>.05$).

표 75 자치구에 따른 피해사고 문제 수준 차이 (재학 중 청소년)

		피해사고 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06	6	3	115	4.157 (.843)
	% within 자치구	92.2%	5.2%	2.6%	100%	
중구	Count	160	8	10	178	
	% within 자치구	89.9%	4.5%	5.6%	100%	
서구	Count	213	16	12	241	
	% within 자치구	88.4%	6.6%	5.0%	100%	
대덕구	Count	138	9	9	156	
	% within 자치구	88.4%	5.8%	5.8%	100%	
유성구	Count	251	21	18	290	
	% within 자치구	86.6%	7.2%	6.2%	100%	
전체	Count	868	60	52	980	
	% within 자치구	88.6%	6.1%	5.3%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신체화 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3.5%, ‘주의’ 5.2%, ‘정상’ 91.3%, 중구의 경우 ‘위험’ 7.9%, ‘주의’ 6.1%, ‘정상’ 86.0%, 서구의 경우 ‘위험’ 7.1%, ‘주의’ 6.6%, ‘정상’ 86.3%, 대덕구의 경우 ‘위험’ 5.1%, ‘주의’ 7.1%, ‘정상’ 87.8%, 유성구의 경우 ‘위험’ 4.8%, ‘주의’ 8.6%, ‘정상’ 86.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X^2=5.725$, $p>.05$).

표 76 자치구에 따른 신체화 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신체화 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05	6	4	115	5.725 (.678)
	% within 자치구	91.3%	5.2%	3.5%	100%	
중구	Count	153	11	14	178	
	% within 자치구	86.0%	6.1%	7.9%	100%	
서구	Count	208	16	17	241	
	% within 자치구	86.3%	6.6%	7.1%	100%	
대덕구	Count	137	11	8	156	
	% within 자치구	87.8%	7.1%	5.1%	100%	
유성구	Count	251	25	14	290	
	% within 자치구	86.6%	8.6%	4.8%	100%	
전체	Count	854	69	57	980	
	% within 자치구	87.1%	7.0%	5.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위험’ 0.9%, ‘주의’ 4.3%, ‘정상’ 94.8%, 중구의 경우 ‘위험’ 6.7%, ‘주의’ 4.5%, ‘정상’ 88.8%, 서구의 경우 ‘위험’ 4.6%, ‘주의’ 8.3%, ‘정상’ 87.1%, 대덕구의 경우 ‘위험’ 3.2%, ‘주의’ 3.2%, ‘정상’ 93.6%, 유성구의 경우 ‘위험’ 6.2%, ‘주의’ 8.3%, ‘정상’ 85.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5.729$, $p<.05$).

표 77 자치구에 따른 중독문제 수준 차이(재학 중 청소년)

		중독문제 (T점수)				$\chi^2(p)$
		정상	주의	위험	전체	
동구	Count	109	5	1	115	15.729 (.046)
	% within 자치구	94.8%	4.3%	0.9%	100%	
중구	Count	158	8	12	178	
	% within 자치구	88.8%	4.5%	6.7%	100%	
서구	Count	210	20	11	241	
	% within 자치구	87.1%	8.3%	4.6%	100%	
대덕구	Count	146	5	5	156	
	% within 자치구	93.6%	3.2%	3.2%	100%	
유성구	Count	248	24	18	290	
	% within 자치구	85.5%	8.3%	6.2%	100%	
전체	Count	871	62	47	980	
	% within 자치구	88.9%	6.3%	4.8%	100%	

3 기관 인식 실태 및 서비스 요구도 결과

1)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인식 실태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0세~24세 청소년들의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전화1388’ 기관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6.9%,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51.4%,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31.7%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전화 1388’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1.8%,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사람이 50.1%,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8.1%로 나타났다.

표 78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인식 실태

구분		기관 인식 실태			합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Count	329	534	175	1,038
	% within 기관인식	31.7%	51.4%	16.9%	100%
청소년 전화 1388	Count	192	513	333	1,038
	% within 기관인식	18.1%	50.1%	31.8%	100%

(1) 성별에 따른 기관 인식 실태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5.2%, ‘이름만 들어봤다’ 47.8%, ‘몰랐다’

37.0%, 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8.4%, ‘이름만 들어봤다’ 54.9%, ‘몰랐다’ 26.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2.713$, $p<.05$).

표 79 성별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X^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남성	Count	187	242	77	506	12.713 (.002)
	% within 성별	37.0%	47.8%	15.2%	100%	
여성	Count	142	292	98	532	
	% within 성별	26.7%	54.9%	18.4%	100%	
전체	Count	329	534	175	1,038	
	% within 성별	31.7%	51.4%	16.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6.7%, ‘이름만 들어봤다’ 49.0%, ‘몰랐다’ 24.3%, 여성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7.2%, ‘이름만 들어봤다’ 49.8%, ‘몰랐다’ 13.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7.035$, $p<.001$).

표 80 성별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청소년 전화1388’				$X^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남성	Count	123	248	135	506	27.035 (.000)
	% within 성별	24.3%	49.0%	26.7%	100%	
여성	Count	69	265	198	532	
	% within 성별	13.0%	49.8%	37.2%	100%	
전체	Count	192	513	333	1,038	
	% within 성별	18.5%	49.4%	32.1%	100%	

(2) 학교급에 따른 기관 인식 실태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6.6%, ‘이름만 들어봤다’ 49.8%, ‘몰랐다’ 33.6%, 중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7.2%, ‘이름만 들어봤다’ 47.6%, ‘몰랐다’ 35.2%, 고등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6.9%, ‘이름만 들어봤다’ 56.4%, ‘몰랐다’ 26.7%,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6.3%, ‘이름만 들어봤다’ 47.1%, ‘몰랐다’ 36.6%,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2.5%, ‘이름만 들어봤다’ 55.0%, ‘몰랐다’ 1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19.733$, $p<.05$).

표 81 학교급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chi^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초등 학생	Count	112	166	55	333	19.733 (.011)
	% within 학교급	33.6%	49.8%	16.6%	100%	
중학생	Count	119	161	58	338	
	% within 학교급	35.2%	47.6%	17.2%	100%	
고등 학생	Count	98	207	62	367	
	% within 학교급	26.7%	56.4%	16.9%	100%	
후기 청소년	Count	63	81	28	172	
	% within 학교급	36.6%	47.1%	16.3%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5	22	13	40	
	% within 학교급	12.5%	55.0%	32.5%	100%	
전체	Count	397	637	216	1,250	
	% within 학교급	31.8%	51.0%	17.2%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7.0%, ‘이름만 들어봤다’ 40.5%, ‘몰랐다’ 22.5%, 중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9.6%, ‘이름만 들어봤다’ 53.8%, ‘몰랐다’ 16.6%, 고등학생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0.0%, ‘이름만 들어봤다’ 53.4%, ‘몰랐다’ 16.6%, 후기 청소년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8.5%, ‘이름만 들어봤다’ 52.9%, ‘몰랐다’ 18.6%,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8.5%, ‘이름만 들어봤다’ 52.9%, ‘몰랐다’ 18.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21.694$, $p<.05$).

표 82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청소년 전화1388’				$\chi^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초등 학생	Count	75	135	123	333	21.694 (.006)
	% within 학교급	22.5%	40.5%	37.0%	100%	
중학생	Count	56	182	100	338	
	% within 학교급	16.6%	53.8%	29.6%	100%	
고등 학생	Count	61	196	110	367	
	% within 학교급	16.6%	53.4%	30.0%	100%	
후기 청소년	Count	32	91	49	172	
	% within 학교급	18.6%	52.9%	28.5%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2	22	16	40	
	% within 학교급	18.6%	52.9%	28.5%	100%	
전체	Count	226	626	398	1,250	
	% within 학교급	18.0%	50.0%	32.0%	100%	

(3) 자치구에 따른 기관 인식 실태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4.6%, ‘이름만 들어봤다’ 54.5%, ‘몰랐다’ 30.9%, 중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4.6%, ‘이름만 들어봤다’ 58.8%, ‘몰랐다’ 26.6%, 서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2.8%, ‘이름만 들어봤다’ 51.2%, ‘몰랐다’ 26.0%, 대덕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6.4%, ‘이름만 들어봤다’ 54.9%, ‘몰랐다’ 28.7%, 유성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3.5%, ‘이름만 들어봤다’ 43.9%, ‘몰랐다’ 42.6%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X^2=30.084$, $p<.05$).

표 83 자치구에 따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식 차이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chi^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동구	Count	38	67	18	123	30.084 (.000)
	% within 자치구	30.9%	54.5%	14.6%	100%	
중구	Count	47	104	26	177	
	% within 자치구	26.6%	58.8%	14.6%	100%	
서구	Count	74	146	65	285	
	% within 자치구	26.0%	51.2%	22.8%	100%	
대덕구	Count	47	90	27	164	
	% within 자치구	28.7%	54.9%	16.4%	100%	
유성구	Count	123	127	39	289	
	% within 자치구	42.6%	43.9%	13.5%	100%	
전체	Count	329	534	175	1,038	
	% within 자치구	31.7%	51.4%	16.9%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8.2%, ‘이름만 들어봤다’ 43.9%, ‘몰랐다’ 17.9%, 중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9.4%, ‘이름만 들어봤다’ 52.5%, ‘몰랐다’ 18.1%, 서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40.4%, ‘이름만 들어봤다’ 44.5%, ‘몰랐다’ 15.1%, 대덕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8.0%, ‘이름만 들어봤다’ 54.3%, ‘몰랐다’ 17.7%, 유성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5.3%, ‘이름만 들어봤다’ 51.9%, ‘몰랐다’ 22.8%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1.386$, $p<.05$).

표 84 자치구에 따른 ‘청소년 전화1388’ 인식 차이

		‘청소년 전화1388’				$\chi^2(p)$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동구	Count	22	54	47	123	21.386 (.006)
	% within 자치구	17.9%	43.9%	38.2%	100%	
중구	Count	32	93	52	177	
	% within 자치구	18.1%	52.5%	29.4%	100%	
서구	Count	43	127	115	285	
	% within 자치구	15.1%	44.5%	40.4%	100%	
대덕구	Count	29	89	46	164	
	% within 자치구	17.7%	54.3%	28.0%	100%	
유성구	Count	66	150	73	289	
	% within 자치구	22.8%	51.9%	25.3%	100%	
전체	Count	192	513	333	1,038	
	% within 자치구	18.5%	49.4%	32.1%	100%	

2)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10세~24세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홍보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표 85 심리적 외상관련 서비스 요구도

구분	심리적 외상관련 서비스 요구도				합계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심리적 외상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Count	292	229	320	191	1,032
	% within 요구도	28.3%	22.2%	31.0%	18.5%	100%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Count	283	148	337	264	1,032
	% within 요구도	27.4%	14.3%	32.7%	25.6%	100%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Count	288	173	334	237	1,032
	% within 요구도	27.9%	16.8%	32.3%	23.0%	10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Count	309	204	319	200	1,032
	% within 요구도	29.9%	19.8%	30.9%	19.4%	100%

(1)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19.5%, ‘필요함’ 27.2%, ‘약간 필요함’ 19.3%, ‘필요하지 않음’ 34.0%, 여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17.5%, ‘필요함’ 34.6%, ‘약간 필요함’ 25.0%, ‘필요하지 않음’ 22.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0.012$, $p<.001$).

표 86 성별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교우관계증진, 학교폭력예방, 심리적 외상 예방 등)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남성	Count	171	97	137	98	503	20.012 (.000)
	% within 성별	34.0%	19.3%	27.2%	19.5%	100%	
여성	Count	121	132	183	93	529	
	% within 성별	22.9%	25.0%	34.6%	17.5%	100%	
전체	Count	292	229	320	191	1,032	
	% within 성별	28.3%	22.2%	31.0%	18.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24.5%, ‘필요함’ 28.6%, ‘약간 필요함’ 13.3%, ‘필요하지 않음’ 33.6%, 여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26.6%, ‘필요함’ 36.5%, ‘약간 필요함’ 15.3%, ‘필요하지 않음’ 21.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723$, $p<.001$).

표 87 성별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남성	Count	169	67	144	123	503	19.723 (.000)
	% within 성별	33.6%	13.3%	28.6%	24.5%	100%	
여성	Count	114	81	193	141	529	
	% within 성별	21.6%	15.3%	36.5%	26.6%	100%	
전체	Count	283	148	337	264	1,032	
	% within 성별	27.4%	14.3%	32.7%	25.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7%, ‘필요함’ 28.0%, ‘약간 필요함’ 15.9%, ‘필요하지 않음’ 34.4%, 여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24.2%, ‘필요함’ 36.5%, ‘약간 필요함’ 17.6%, ‘필요하지 않음’ 21.7%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1.635$, $p<.001$).

표 88 성별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X^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남성	Count	173	80	141	109	503	21.635 (.000)
	% within 성별	34.4%	15.9%	28.0%	21.7%	100%	
여성	Count	115	93	193	128	529	
	% within 성별	21.7%	17.6%	36.5%	24.2%	100%	
전체	Count	288	173	334	237	1,032	
	% within 성별	27.9%	16.8%	32.3%	23.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19.7%, ‘필요함’ 26.6%, ‘약간 필요함’ 17.1%, ‘필요하지 않음’ 36.6%, 여성의 경우 ‘매우 필요함’ 19.1%, ‘필요함’ 35.0%, ‘약간 필요함’ 22.3%, ‘필요하지 않음’ 23.6%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3.819$, $p<.001$).

표 89 성별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남성	Count	184	86	134	99	503	23.819 (.000)
	% within 성별	36.6%	17.1%	26.6%	19.7%	100%	
여성	Count	125	118	185	101	529	
	% within 성별	23.6%	22.3%	35.0%	19.1%	100%	
전체	Count	309	204	319	200	1,032	
	% within 성별	29.9%	19.8%	30.9%	19.4%	100%	

(2)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1%, ‘필요함’ 29.4%, ‘약간 필요함’ 21.1%, ‘필요하지 않음’ 28.4%, 중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17.2%, ‘필요함’ 31.0%, ‘약간 필요함’ 21.7%, ‘필요하지 않음’ 30.1%,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17.2%, ‘필요함’ 32.6%, ‘약간 필요함’ 23.6%, ‘필요하지 않음’ 26.6%,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25.6%, ‘필요함’ 44.8%, ‘약간 필요함’ 18.6%, ‘필요하지 않음’ 11.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27.5%, ‘필요함’ 37.5%, ‘약간 필요함’ 12.5%, ‘필요하지 않음’ 22.5%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36.913$, $p<.001$).

표 90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도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교우관계증진, 학교폭력예방, 심리적 외상 예방 등)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초등 학생	Count	94	70	97	70	331	36.913 (.000)
	% within 학교급	28.4%	21.1%	29.4%	21.1%	100%	
중학생	Count	101	73	104	58	336	
	% within 학교급	30.1%	21.7%	31.0%	17.2%	100%	
고등 학생	Count	97	86	119	63	365	
	% within 학교급	26.6%	23.6%	32.6%	17.2%	100%	
후기 청소년	Count	19	32	77	44	172	
	% within 학교급	11.0%	18.6%	44.8%	25.6%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9	5	15	11	40	
	% within 학교급	22.5%	12.5%	37.5%	27.5%	100%	
전체	Count	320	266	412	246	1,244	
	% within 학교급	25.7%	21.4%	33.1%	19.8%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3.9%, ‘필요함’ 26.3%, ‘약간 필요함’ 17.5%, ‘필요하지 않음’ 32.3%, 중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8.2%, ‘필요함’ 31.0%, ‘약간 필요함’ 13.7%, ‘필요하지 않음’ 27.1%,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4.7%, ‘필요함’ 40.0%, ‘약간 필요함’ 12.0%, ‘필요하지 않음’ 23.3%,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48.8%, ‘필요함’ 33.7%, ‘약간 필요함’ 10.5%, ‘필요하지 않음’ 7.0%,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45.0%, ‘필요함’ 32.5%, ‘약간 필요함’ 2.5%, ‘필요하지 않음’ 2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83.042$, $p<.001$).

표 91 학교급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107	58	87	79	331	83.042 (.000)
	% within 학교급	32.3%	17.5%	26.3%	23.9%	100%	
중학생	Count	91	46	104	95	336	
	% within 학교급	27.1%	13.7%	31.0%	28.2%	100%	
고등학생	Count	85	44	146	90	365	
	% within 학교급	23.3%	12.0%	40.0%	24.7%	100%	
후기 청소년	Count	12	18	58	84	172	
	% within 학교급	7.0%	10.5%	33.7%	48.8%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8	1	13	18	40	
	% within 학교급	20.0%	2.5%	32.5%	45.0%	100%	
전체	Count	303	167	408	366	1,244	
	% within 학교급	24.4%	13.4%	32.8%	29.4%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2.1%, ‘필요함’ 27.2%, ‘약간 필요함’ 18.4%, ‘필요하지 않음’ 32.3%, 중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3.8%, ‘필요함’ 30.0%, ‘약간 필요함’ 17.3%, ‘필요하지 않음’ 28.9%,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3.0%, ‘필요함’ 39.2%, ‘약간 필요함’ 14.8%, ‘필요하지 않음’ 23.0%,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37.2%, ‘필요함’ 39.0%, ‘약간 필요함’ 15.1%, ‘필요하지 않음’ 8.7%,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42.5%, ‘필요함’ 32.5%, ‘약간 필요함’ 5.0%, ‘필요하지 않음’ 20.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60.018$, $p<.001$).

표 92 학교급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X^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107	61	90	73	331	60.018 (.000)
	% within 학교급	32.3%	18.4%	27.2%	22.1%	100%	
중학생	Count	97	58	101	80	336	
	% within 학교급	28.9%	17.3%	30.0%	23.8%	100%	
고등학생	Count	84	54	143	84	365	
	% within 학교급	23.0%	14.8%	39.2%	23.0%	100%	
후기 청소년	Count	15	26	67	64	172	
	% within 학교급	8.7%	15.1%	39.0%	37.2%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8	2	13	17	40	
	% within 학교급	20.0%	5.0%	32.5%	42.5%	100%	
전체	Count	311	201	414	318	1,244	
	% within 학교급	25.0%	16.2%	33.3%	25.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학교급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1%, ‘필요함’ 27.2%, ‘약간 필요함’ 18.7%, ‘필요하지 않음’ 33.0%, 중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18.5%, ‘필요함’ 29.8%, ‘약간 필요함’ 20.8%, ‘필요하지 않음’ 31.0%, 고등학생의 경우 ‘매우 필요함’ 18.6%, ‘필요함’ 35.3%, ‘약간 필요함’ 19.8%, ‘필요하지 않음’ 26.3%, 후기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36.0%, ‘필요함’ 37.8%, ‘약간 필요함’ 18.6%, ‘필요하지 않음’ 7.6%,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매우 필요함’ 35.0%, ‘필요함’ 32.5%, ‘약간 필요함’ 7.5%, ‘필요하지 않음’ 25.0%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62.427$, $p<.001$).

표 93 학교급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X^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초등학생	Count	109	62	90	70	331	62.427 (.000)
	% within 학교급	33.0%	18.7%	27.2%	21.1%	100%	
중학생	Count	104	70	100	62	336	
	% within 학교급	31.0%	20.8%	29.8%	18.5%	100%	
고등학생	Count	96	72	129	68	365	
	% within 학교급	26.3%	19.8%	35.3%	18.6%	100%	
후기 청소년	Count	13	32	65	62	172	
	% within 학교급	7.6%	18.6%	37.8%	36.0%	100%	
학교밖 청소년	Count	10	3	13	14	40	
	% within 학교급	25.0%	7.5%	32.5%	35.0%	100%	
전체	Count	332	239	397	276	1,244	
	% within 학교급	26.7%	19.2%	31.9%	22.2%	100%	

(3)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4.0%, '필요함' 27.0%, '약간 필요함' 20.5%, '필요하지 않음' 38.5%, 중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3.7%, '필요함' 33.7%, '약간 필요함' 25.7%, '필요하지 않음' 26.9%, 서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2.5%, '필요함' 36.3%, '약간 필요함' 18.0%, '필요하지 않음' 23.2%, 대덕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5.3%, '필요함' 29.4%, '약간 필요함' 24.0%, '필요하지 않음' 31.3%, 유성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2%, '필요함' 26.7%, '약간 필요함' 24.0%, '필요하지 않음' 28.1%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5.203$, $p<.05$).

표 94 자치구에 따른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요구도

		심리적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교우관계증진, 학교폭력예방, 심리적 외상 예방 등)					$X^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동구	Count	47	25	33	17	122	25.203 (.014)
	% within 자치구	38.5%	20.5%	27.0%	14.0%	100%	
중구	Count	47	45	59	24	175	
	% within 자치구	26.9%	25.7%	33.7%	13.7%	100%	
서구	Count	66	51	103	64	284	
	% within 자치구	23.2%	18.0%	36.3%	22.5%	100%	
대덕구	Count	51	39	48	25	163	
	% within 자치구	31.3%	24.0%	29.4%	15.3%	100%	
유성구	Count	81	69	77	61	288	
	% within 자치구	28.1%	24.0%	26.7%	21.2%	100%	
전체	Count	292	229	320	191	1,032	
	% within 자치구	28.3%	22.2%	31.0%	18.5%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3.8%, ‘필요함’ 28.7%, ‘약간 필요함’ 13.9%, ‘필요하지 않음’ 33.6%, 중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9.4%, ‘필요함’ 37.1%, ‘약간 필요함’ 14.9%, ‘필요하지 않음’ 28.6%, 서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8.1%, ‘필요함’ 34.9%, ‘약간 필요함’ 12.7%, ‘필요하지 않음’ 24.3%, 대덕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0.2%, ‘필요함’ 31.9%, ‘약간 필요함’ 17.8%, ‘필요하지 않음’ 30.1%, 유성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30.5%, ‘필요함’ 29.9%, ‘약간 필요함’ 13.9%, ‘필요하지 않음’ 25.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6.411$, $p>.05$).

표 95 자치구에 따른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요구도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X^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동구	Count	41	17	35	29	122	16.411 (.173)
	% within 자치구	33.6%	13.9%	28.7%	23.8%	100%	
중구	Count	50	26	65	34	175	
	% within 자치구	28.6%	14.9%	37.1%	19.4%	100%	
서구	Count	69	36	99	80	284	
	% within 자치구	24.3%	12.7%	34.9%	28.1%	100%	
대덕구	Count	49	29	52	33	163	
	% within 자치구	30.1%	17.8%	31.9%	20.2%	100%	
유성구	Count	74	40	86	88	288	
	% within 자치구	25.7%	13.9%	29.9%	30.5%	100%	
전체	Count	283	148	337	264	1,032	
	% within 자치구	27.4%	14.3%	32.7%	25.6%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0.5%, ‘필요함’ 28.7%, ‘약간 필요함’ 15.6%, ‘필요하지 않음’ 35.2%, 중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7.7%, ‘필요함’ 34.9%, ‘약간 필요함’ 18.9%, ‘필요하지 않음’ 28.5%, 서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5.0%, ‘필요함’ 37.0%, ‘약간 필요함’ 15.1%, ‘필요하지 않음’ 22.9%, 대덕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5%, ‘필요함’ 25.8%, ‘약간 필요함’ 20.2%, ‘필요하지 않음’ 32.5%, 유성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6.1%, ‘필요함’ 31.6%, ‘약간 필요함’ 15.6%, ‘필요하지 않음’ 26.7%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17.972$, $p>.05$).

표 96 자치구에 따른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동구	Count	43	19	35	25	122	17.972 (.117)
	% within 자치구	35.2%	15.6%	28.7%	20.5%	100%	
중구	Count	50	33	61	31	175	
	% within 자치구	28.5%	18.9%	34.9%	17.7%	100%	
서구	Count	65	43	105	71	284	
	% within 자치구	22.9%	15.1%	37.0%	25.0%	100%	
대덕구	Count	53	33	42	35	163	
	% within 자치구	32.5%	20.2%	25.8%	21.5%	100%	
유성구	Count	77	45	91	75	288	
	% within 자치구	26.7%	15.6%	31.6%	26.1%	100%	
전체	Count	283	173	334	237	1,032	
	% within 자치구	27.9%	16.8%	32.3%	23.0%	100%	

- 대전 지역 청소년의 자치구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동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8.0%, ‘필요함’ 26.2%, ‘약간 필요함’ 15.6%, ‘필요하지 않음’ 40.2%, 중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4.3%, ‘필요함’ 32.0%, ‘약간 필요함’ 22.3%, ‘필요하지 않음’ 31.4%, 서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2.9%, ‘필요함’ 36.6%, ‘약간 필요함’ 16.2%, ‘필요하지 않음’ 24.3%, 대덕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15.3%, ‘필요함’ 27.0%, ‘약간 필요함’ 22.1%, ‘필요하지 않음’ 35.6%, 유성구의 경우 ‘매우 필요함’ 21.9%, ‘필요함’ 28.8%, ‘약간 필요함’ 22.2%, ‘필요하지 않음’ 27.1%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른 빈도 차이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6.431$, $p<.05$).

표 97 자치구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요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chi^2(p)$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동구	Count	49	19	32	22	122	26.431 (.009)
	% within 자치구	40.2%	15.6%	26.2%	18.0%	100%	
중구	Count	55	39	56	25	175	
	% within 자치구	31.4%	22.3%	32.0%	14.3%	100%	
서구	Count	69	46	104	65	284	
	% within 자치구	24.3%	16.2%	36.6%	22.9%	100%	
대덕구	Count	58	36	44	25	163	
	% within 자치구	35.6%	22.1%	27.0%	15.3%	100%	
유성구	Count	78	64	83	63	288	
	% within 자치구	27.1%	22.2%	28.8%	21.9%	100%	
전체	Count	309	204	319	200	1,032	
	% within 자치구	29.9%	19.8%	30.9%	19.4%	100%	

04

제언

“

Chapter 4

제언

”

1. 청소년 심리적 외상 위기 개입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 40%의 재학 중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1%의 청소년이 위험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PTSD 진단을 위한 진단용 스크리닝 도구라는 점에서 진단 기준인 위험 수준의 청소년이 11.1%로 나타났다는 것은 대한민국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평생 유병률이 1.5%인 것을 생각해 볼 때 7배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 할 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 하에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전지역 청소년의 PTSD 관련 문제의 발생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집단을 조기 선별하여 우선순위 별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심리적 외상 및 공존증상의 위험 수준별 개입 방향 마련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공존증상 수준에 따라 정상 집단, 주의집단, 위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각한 수준(3점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고하는 집단이 11.1%, 심각한 수준(T70 이상)의 공존증상 문제를 보고하는 집단이 평균 5.5%로 재학 중 청소년 중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심리적 외상 경험과 공존증상 문제에

대한 취약성 요인과 같은 위험요인과 이들의 회복을 돕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심각한 위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이나 치료적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의 수준으로 나타난 집단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 이들에게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보호요인 강화와 교육적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상집단을 위한 홍보나 캠페인, 심리적 외상 대처 교육 등 위험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급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제공

-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학교급에 따른 심리적 외상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위험 수준 집단이 11.1%인 것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위험 수준 집단은 27.5%로 나타나 재학 중 청소년의 약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공존증상 문제 또한 위험 수준이 평균 13.2%로 나타나 재학 중 청소년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표본 수의 한계를 감안하여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수준이 심각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 홍보 활성화

- 한편,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16.9%, 31.8%,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51.4%, 50.1%로 기관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심리적 외상 수준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에 심리적 외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인식 개선을 위한 기관 홍보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사업과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강화

- 대전지역 재학 중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관련 공존증상 결과 T70점 이상의 위험군이 불안문제에서 5.5%, 우울문제 5.9%, 분노문제 5.0%, 피해사고 5.3%, 신체화문제 5.8%, 중독문제 4.8%로 전국기준 두 배가량 높아 대전지역의 심리적 외상 공존증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 ‘심리검사 및치료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25.6%,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23.0%로 서비스 요구가 가장 높았던 치료비용 지원 사업과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큼을 알 수 있다.

05

참고문헌

“

Chapter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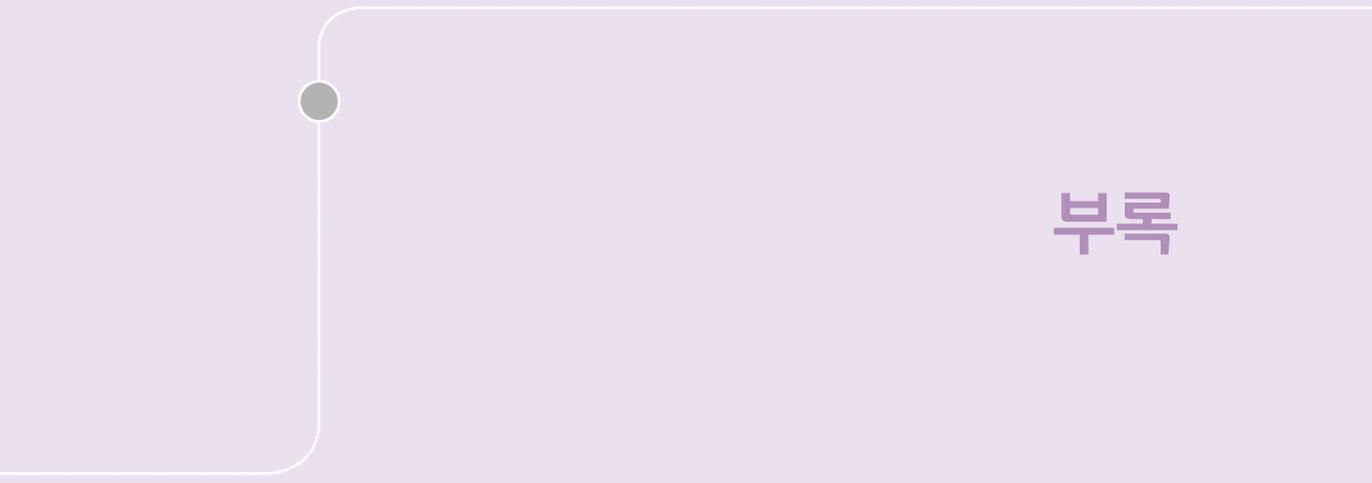
참고문헌

”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20).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 경북: 경북 여성정책개발원.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 (2012). 한국인이 경험한 외상사건: 종류 및 발생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71-701.
- 안귀여루. (2001). 통제 소재에 따른 스트레스 과제에 대한인지적 평가와 생리적 반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127-143.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유순덕. (2018). 경기도 CYS-Net 긴급 대응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트라우마 심리지원단
- 이미원. (2018).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2018년 전국 청소년상담자대회 자료집.
- 주소희. (2016). 외상경험 아동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65-83.

- 차지영, 함경애, 천성문. (2019). 외상경험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2), 129-157.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arlow, D., Allen, L., & Choate, M. (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 (2), 205-230.
- Cole, P. M., & Putnam, F. W. (1992). Effect of incest on self and social functioning: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2), 174.
- Cogle, J. R., Resnick, H., & Kilpatrick, D. G. (2009). PTSD, depression, and their comorbidity in relation to suicidality: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analyses of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of women. Depression and Anxiety, 26(12), 1151-1157.
- Frazier, P., Tennen, H., Gavian, M., Park, C., Tomich, P., & Tashiro, T. (2009). Does self-reported posttraumatic growth reflect genuine positive change?. Psychological science, 20(7), 912-919.
- Hawks, E., Blumenthal, H., Feldner, M. T., Leen-Feldner, E. W., & Jones, R. (201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 exposure and panic-relevant biological challenge responding among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42(3), 427-438.
- Herman, J. L.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3), 377-391.

-
- Jung, Y. E., Kim, D., Kim, W. H., Roh, D., Chae, J. H., & Park, J. E. (2018). A brief screening tool for PTS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K-PC-PTSD-5).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3(52).
 - Kilmer, R. P. (2014).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in children. In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pp. 264-288). Routledge.
 - McCormick, C. M., Mathews, I. Z., Thomas, C., & Waters, P. (2010). Investigations of HPA function and the enduring consequences of stressors in adolescence in animal models. *Brain and cognition*, 72(1), 73-85.
 - Ozer, E. J., Best, S. R., Lipsey, T. L., & Weiss, D. S. (2003).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ymptoms in adult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9(1), 52.
 - Prins, A., Bovin, M. J., Smolenski, D. J., Marx, B. P., Kimerling, R., Jenkins-Guarnieri, M. A., ... & Tiet, Q. Q. (2016). 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 (PC-PTSD-5): development and evaluation within a veteran primary care sampl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31(10), 1206-1211.
 - Stevens, S. J., Murphy, B. S., & McKnight, K. (2003). Traumatic stress and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to substance abuse,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HIV risk behavior in a sample of adolescents enrolled in drug treatment. *Child maltreatment*, 8(1), 46-57.
 - Van der Kolk, B. A. (1987).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overwhelming life experiences. *Psychological trauma*, 1-30.



부록

“

부록. 설문지

”

조사원
작성

대전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전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지역 청소년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다음 문항의 내용을 읽고, 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에 답에 맞고 틀림이 없으며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니 모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팀 042)256-6582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1. 아래 문항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 중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사고나 자연재해 ⑤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따로 살게 됨)
②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체 질병 ⑥ 심각한 왕따나 따돌림

- ③ 범죄피해 (폭행, 강도, 위협 등) ⑦ 성추행이나 성폭행
 ④ 사랑하는 사람(가족,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 ⑧ 그 외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경험 (내용: _____)

2. 앞서 표시한 사건들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하나만 선택해서 번호를 적어주세요.
 (_____) 번

3. 위에 답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 ① 현재 ~ 3개월 전 ② 3개월 ~ 6개월 전 ③ 6개월 ~ 1년 전 ④ 1년 이상

▣ **앞서 응답한**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들 때문에 **지난 1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경험을 했나요? ‘예’, ‘아니오’로 표시해주시시오.

문 항		아니오	예
4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①	②
5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①	②
6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①	②
7	다른사람, 일상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①	②
8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①	②

▣ 아래 문항은 **앞에서 표시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귀하의 일상생활이나 중요한 활동이 얼마나 크게 방해받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때를 기준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 항		경험 없음	심각 하지 않음	조금 심각 함	많이 심각 함
9	그 경험 이후 불규칙한 수면이나 식사로 인해 신체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문 항		경험 없음	심각 하지 않음	조금 심각 함	많이 심각 함
10	그 경험 이후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감정적 고통이나 문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1	그 경험 이후 가족, 선생님, 친구 등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2	그 경험 이후 가족이나 친구,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어지거나 단절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13	그 경험 이후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 다음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 항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4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15	두려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16	불안하거나 초조해서 가만히 있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17	긴장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8	실수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19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20	심장이 너무 빨리 혹은 불규칙하게 뛰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1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2	갑자기 정신을 놓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23	기분이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24	사는 게 허무하게(의미 없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5	내 삶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6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줄었다	①	②	③	④
27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①	②	③	④
28	주의집중이 잘 안된다	①	②	③	④
29	예전보다 쉽게 지친다	①	②	③	④

	문항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30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31	죄책감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32	무언가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3	누군가 마구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4	물건을 내던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5	주위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	①	②	③	④
36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37	화가 나면 참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38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39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40	주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41	다른 사람들은 내 노력이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2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43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44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45	사람이란 믿을 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46	배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47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쭈신다	①	②	③	④
48	속이 더부룩하다	①	②	③	④
49	어지럽다	①	②	③	④
50	머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51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52	가슴에 통증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53	특정 행위(음주, 흡연, 게임 등)를 할 때, 내 힘으로 멈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54	특정 행위(음주, 흡연, 게임 등)에 대해 강한 충동(갈망)을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55	특정 행위(음주, 흡연, 게임 등)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 오늘 조사 이전에 아래 적힌 곳에서 심리적 외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문 항		몰랐다	이름만 들어봤다	잘 알고있다
56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심리적 외상 문제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긴급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①	②	③
57	청소년 전화1388 * 심리적 외상 문제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전화번호	①	②	③

▣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등 심리적 외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세요.

문 항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58 외상 피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예방교육 (교우관계증진, 학교폭력예방, 외상 예방 등)	①	②	③	④
59 심리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	①	②	③	④
60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6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홍보활동	①	②	③	④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